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석사학위논문

안창후 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호 소 운

안창후 문학 연구

A study on Anchanghu's literature

202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호 소 운

안창후 문학 연구

지도교수 이상원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호 소 운

호소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u>엄태식</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u>정길수</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u>이상원</u> (인)

202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Ⅲ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대상 및 논의 순서	4
II. 안창후의 생애 및 『한설당집』의 성격	5
1. 안창후의 가계 및 생애	5
1) 안창후 가계의 특성	5
2) 안창후의 생애	7
2. 『한설당유고』와 『유고』에 관한 고찰	10
1) 『한설당유고』의 구성	11
2) 『유고』의 구성	13
3)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비교	15
III. 안창후의 문학 세계	20
1. 한시의 특성	20
1) 불우한 신세 한탄	21
2) 유교적 도(道)의 표출	25
3) 지(志)와 진(眞)의 직설적 표현	27

2. 한문 산문의 특성	30
1) 일상적 삶에 필요한 기본 윤리 제시	32
2) 실현 가능한 예에 대한 강조	40
3. 한설이십오의 특성	43
1) 인간의 심성과 처사에 관한 가르침	45
2)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문의 화목 강조	48
IV. 안창후 문학의 문학사적 위상	53
V. 결론	56
<참고 문헌>	58

ABSTRACT

Hu, Xiaoyun

Advisor : prof. Lee Sang-won,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nchanghu's literature and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by intensively analyzing the Korean poetry, Chinese prose, and Korean poetry published in <Hanseoldang Yugo>, written by Anchanghu, a writer in the late Joseon period.

When looking at the expressions used in the Han poetry works written by Anchanghu, there is a tendency to use simple, unaffected language rather than flashy and profound modifiers. In particular, it is emphasizing true feelings in the creation of Korean poems. And in his poems, there aren't many sigyeongs and warriors, but instead contain a lot of his own aspirations and Confucian ideology. In addition, it seems he intended to teach while criticizing the problems that were not correct in society by borrowing poetry based on the position of jaedo theory and placing importance on the function of Han poetry. Through this, he was able to confirm his worth in a situation where he was not able to succeed, and as a Hyangchonsa tribe, he tried to transform evil spirits into society.

Looking at Anchanghu's prose, it seems that he is using the door to teach individual personality training and ceremonial occasions in everyday life. Among them, there are many teachings on etiquette, and it seems that it is intended to make the people of this world polit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eremonial occasions related to studying abroad. And

Anchanghu puts the most importance on rituals in ceremonial occasions. In addition, it seems that it is trying to stabilize the order of society through edification so as to equip both individuals and families.

Likewise in Korean poetry, it seems that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was taught to people through the sijo. Among them, poetry widely teaches how to properly treat the various relationships that have come into society so that humans can live like a military man.

Overall, it seems that Anchanghu likes a straightforward and unaffected way of expression, emphasizes the function of literature, and criticizes the current situation starting from the theory of jaedo, while teaching the ideology of studying abroad in literature.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y tried to recover the loss of courtesy and the dizziness of personality that existed in society at the time. Therefore, when referring to the literary tendencies of many literary men in society at that time, Anchanghu's literature can be defined as a relatively very conservative and old-fashioned trend, and appears to be a traditional Confucian scholar. Considering these points, it can be said that Anchanghu's literature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humanistic cultivation for the peop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especially the people and scholars living in the Honam region.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설당집(閑說堂集)』¹⁾은 조선 후기 전라도(全羅道) 보성(寶城)의 문인 안창후(安昌後, 1687~1771)가 남긴 문집이다. 이 문집의 가장 큰 특징은 안창후가 한문과 국문을 모두 이용하여 한시·한문산문·국문시가 등의 문학 형식으로 창작한 작품들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안창후는 이 문집에서 한시·한문산문·시조·가사 등 여러 문학 양식을 선택해 자신만의 정서와 이념을 토로하고 표출하였다. 이렇게 남겨진 안창후의 문학은 조선 후기호남 지역 문인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데 큰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설당유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편찬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몇 개의 자료로 엮인 것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문집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두 종의 필사본을 살펴보면, 각각 실려 있는 작품들 가운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작품의 배열 순서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때문에 두 필사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곧 안창후의 작품을 검토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한편 『한설당유고』에는 한문 문학인 한시·기(記)·설(說)·제문(祭文)·주해(註解)·포양장(褒揚狀)을 비롯하여 국문 문학인 시조·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장르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중 거의 ‘한설이십오(閑說二十五)’²⁾의 국문시가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을 뿐 그 밖의 한시와 한문산문 등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연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주목 받지 못한 한시와 한문산문 및 잡저 등도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안창후 문학 연구를 더욱 정밀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설당집』의 두 필사본의 차이를 정리하고, 거기에 실린 모든 작품을 계량한 후에 각 장르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뽑아 연구의 자료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창후의 문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설당집』의 두 필사본의 구성과 차이를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

1) 안창후의 문집인 『한설당유고』(영인본)는 『한설당유고』, 『유고』, 『한설당행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설당유고』(영인본)를 『한설당집』으로, 그리고 이 영인본 내에 수록된 『한설당유고』는 『한설당유고』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안창후가 창작한 국문시가는 시조 24수와 가사 1편인데, 모두 ‘한설이십오’에 속해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국문시가를 ‘한설이십오’의 한문산문 및 한시와 아울러 다룬다.

여 『한설당집』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한설당집』에 실린 한시와 한문산문 및 ‘한설이십오’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그 문학적 특징 및 문학관을 조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창후 문학의 위상을 조선 후기 호남 향촌 사족의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2. 연구사 검토

안창후와 『한설당집』에 관한 연구는 이상보³⁾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상보는 최초로 학계에 이 문집을 소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변시연에게서 얻어 본 책이라고 하였다. 그는 논문을 통하여 『한설당집』의 서지와 구성을 간단히 밝히고 안창후 시가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면서 “안창후의 시가가 18세기 호남가단을 더욱 빛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⁴⁾라고 하였다. 이상보의 논문은 새로운 고전 자료를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안창후의 사상 지향과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흥모⁵⁾와 설인경⁶⁾은 안창후의 시조를 18세기 혹은 조선 후기라는 배경 속에서 분석하여 사대부 지위가 격변하는 시대에 향촌사족으로서 가문의 유지와 세계 인식을 표출하기 위하여 안창후가 시조를 창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창후는 국문시가를 통하여 성리학·도학적인 의식을 표출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 두 논문은 모두 안창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며, 안창후의 시조를 예로 들어 간략하게 분석함을 통하여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시조 연구의 논거로 사용하였다. 즉 이 두 논문은 안창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안창후의 시조에 대한 연구는 송재연⁷⁾과 배대웅⁸⁾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송재연은 안창후의 시조 지향을 도학으로 규정하였으며, “도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안창

3) 이상보, 「한설당 안창후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9,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1.

4) 위의 논문, 20면.

5) 정흥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234면.

6) 설인경,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0, 28~33면.

7) 송재연, 「안창후(安昌後) 시조의 도학적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국문학연구』 31권, 국문학회, 2015.

8) 배대웅, 「한설당 안창후 시조의 창작 배경과 작품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4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후는 수양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심성을 함양하는 실천적 문제를 다양한 양식의 문학 작품으로 창작, 향유하여 교화 효과를 높이고 있다.”⁹⁾라고 하였다. 그는 안창후의 시조를 인도의 함양, 선비로서의 직분수행, 효 윤리의 강조로 나누어 언급하면서 안창후가 특히 오류에 속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밝혔고, 안창후가 이런 주제의 시조를 이용하여 조선후기 변화하는 향촌사회에 몰락한 향촌사족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높이고 가문의식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안창후의 시조를 같은 시기의 향촌사족인 황윤석(黃胤錫)의 시조와 비교하여, 둘 다 인간과 인간사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양자의 지향점은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설이십오’의 시조만 분석했기 때문에 장르적으로 비교하거나 연관성을 다루는 논의가 없었다. 더불어 안창후가 작품에 투영한 문학관을 과연 도학적인 이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도 생긴다.

배대웅은 ‘한설이십오’의 한문산문·한시·시조를 함께 비교·분석하고 안창후 시조의 창작 배경과 작품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는 안창후의 시조가 형식적으로 강학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훈시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사람의 도리에 관한 함양, 인간의 선천적 자질, 효 의식과 가문 의식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교훈을 시조를 통해 표출하였다는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안창후의 시조 창작 목적을 향촌사족으로서 문중자제 교화를 위한 강학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한문산문(자세한 가르침) → 한시(친절한 가르침) → 국문시가(핵심적인 가르침)’의 순서대로 창작하고 청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강학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¹⁰⁾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단일적으로 시가에 중점을 두어 안창후 대다수의 작품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구를 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작가의 문학세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안창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의 연구들은 안창후의 ‘한설이십오’, 그중에서도 특히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설당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기(記)·설(說)·제문(祭文)·잡저(雜著) 등 여러 형식의 문학 작품에 관한 연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설당집』에 관한 잘못된 설명이 연구 곳곳에서 발견되며, 문집의 구성 및 이본간의 차이도 아직까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한설당집』에 대한 기초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창후의 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시 시도되지 않은 것이다.

9) 송재연, 앞의 논문, 132면.

10) 배대웅, 앞의 논문, 241면.

3. 연구 대상 및 논의순서

본고에서는 안창후의 『한설당집』에 수록된 한시·한문산문·국문시가 등 모든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되, 양식적 특성에 따라 ‘한시’, ‘한문산문’, ‘한설이십오’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의 필사본이 내용 및 작품 수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겠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론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선 안창후의 가계와 생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계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참고해 죽산 안씨 가문 중 대표로 들 수 있는 인물을 몇 명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설당유고』와 그에 실린 「한설당연보」를 참고하여 안창후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두 종의 필사본의 서지와 구성을 살펴본다. 두 종의 필사본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여 이본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한편, 이본 교감을 통해 『한설당집』의 본래적인 모습을 추적하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먼저 한시의 특징과 주제를 밝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한시 작품을 뽑아 번역하고 분석하겠다. 그 다음에는 안창후의 한문산문 세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수필, 기, 설 등 여러 한문산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한설이십오’의 한문산문·한시·국문시가를 검토하겠다. ‘한설이십오’는 같은 주제가 한문산문·한시·국문시가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아울러 고찰하도록 분석하겠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조선 후기의 향촌사족들의 문학 활동과 연관지어 분석하겠다. 조선 후기 호남 지역에서 살았던, 대표적 향촌사족인 황윤석과 위백규 등의 문학을 살피고, 안창후의 문학과 사상이 어떤 문학사적 위상과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하도록 하겠다.

Ⅱ. 안창후의 생애 및 『한설당집』의 성격

1. 안창후의 가계 및 생애

1) 안창후 가계의 특성

안창후(安昌後, 1687~1771)는 자가 계중(繼仲), 호가 한설당(閑說堂)이며, 1687년(숙종 13년) 5월 10일에 전라남도 보성군 택촌리(宅村里)에서 태어났다. 택촌리는 죽산 안씨 가십여 대에 걸쳐 세거해 오던 곳이다.¹¹⁾ 그는 죽산 안씨 1세인 죽성군(竹城君) 원형(元衡)의 제16세손이다. 원형은 순흥 안씨 시조인 안자미(安子美)의 7세손이고 순흥 안씨에게서 갈라져 죽산 안씨 제1세가 된 것이다. 족보와 자료를 참고하여 대표적인 몇 명을 선택해 그들의 생활 궤적을 통하여 안창후가 어떤 집안에서 성장했는지, 어떤 문화 배경 아래서 자기만의 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¹²⁾

안창후의 가계에서는 대부분이 문과에 합격하여 문관으로서 벼슬 생활을 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향촌사족으로서 학문에 전념하는 자도 있었으며, 무관으로서 벼슬을 한 사람도 있었다.

문관으로서 살았던 사람 중 먼저 1세인 죽성군 안원형(安元衡)은 순흥 사람이고 초명은 원룡(元龍), 자는 경보(敬甫), 호는 일호(一湖)이다. 그는 1341년(고려 충혜왕 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사를 지내고 금자광록대부 문하시중 평장사에 이르렀으며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서 죽성군에 봉해지고, 문혜(文惠)라는 시호를 받았다.¹³⁾ 안원형은 죽산 안씨의 1세로서 충분히 빛난 인물이라 할 수 있으나, 그 후계자도 손색이 없는 존재였다. 2세 면(勉)은 호가 쌍청당(雙淸堂)이고 1353년(고려 공민왕 2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금자광록대부 정당문학 대승상에 이르러 흥령군(興寧君)에 봉해졌다. 목은 이색(李穡)과 뜻이 같고 도가 균등하여 교분이 매우 돈독하였다.¹⁴⁾ 이후 3세 정생(挺生)도 문과에 급

11) “五月(丙午), 初十日(丁亥), 庚子時, 生于寶城郡宅村里. 宅村即十餘代世居之地.” 『한설당연보』.

12) 안창후의 가계 및 생애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한설당유고』 안에 실려 있는 「한설당연보」와 안재경 선생이 제공한 족보 자료인 『安氏同源과 賜姓』 그리고 이상보 논문 안에 소개한 가계 상황을 참조한다. 이상보, 앞의 책, 6~8면 참조.

13) “順興人, 初諱元龍, 字敬甫, 號一湖, 高麗忠惠王辛巳, 文科, 歷密直司事…門下侍中, 平章事, 以佐命功臣, 封竹城君, 諡文惠, 勤學好問曰文, 柔質慈民曰惠.” 『죽산안씨족보』 ‘죽성군 안원형’

14) “有諱勉, 號雙淸堂, 與牧隱李文靖公穡, 志同道均, 交契甚篤.” 『한설당연보』.

제하여 사간원 대사간으로 시작해서 보문각 직제학에 이르렀다.¹⁵⁾

이렇게 선대에는 고관대작을 역임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8세 수륜(秀崙)은 문과 을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학유(學諭)에 그쳤다.¹⁶⁾ 9세 축(軸)은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고, 학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기재 신광한(申光漢)이 조정에 천거하였는데, 아직 탁용(擢用)되기 전에 을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사헌부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하서 김인후(金麟厚), 석전 임억령(林億齡)과 외지에서 한가로이 노니니, 세상 사람들이 호남삼고(湖南三高)라 일컬었다. 만년에 나주목사를 지냈다.¹⁷⁾

15세 세헌(世獻)은 안창후의 아버지인데 독특한 것은 무관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14세인 여상(汝相)이 23세로 일찍 요절해서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양자로 들어와 뒤를 이었다.¹⁸⁾ 자가 자징(子徵)이며 호는 지재(止齋)인데 무과로 부사과였다. 귀암 박권이 그의 재주를 아껴 여러 차례 벼슬길에 추천했으나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기르며 덕을 닦았다. 아내 함평 이씨와 2남 3녀를 두었는데, 맏아들이 바로 안창후이다.¹⁹⁾

지금까지 안창후의 가계 중에 중요한 몇몇 사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안창후는 문화 소양이 깊은 향촌사족 가문에서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대에 걸쳐 급제하고 벼슬한 것을 보아 분명히 선인에게서 학풍(學風), 인성(人性), 세계관 등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문학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안씨 가문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벼슬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임금에게 봉을 받거나 대승상에 이른 경우도 있지만 관직의 등급은 후대로 내려올수록 점점 약세를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안창후가 『한설당유고』에 실린 <술애회(述哀懷)>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문가이지만 집안 사람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²⁰⁾ 사람의 부족은 한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가문이 남쪽으로 옮겨 중앙 정치권과 단절된 것이나 가세가 번창하지 못한 점 등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안창후의 시문 창작에는 향촌사족 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15) ‘삼세정생’에 “始仕本朝我世宗朝文科，官司諫院大司諫，至寶文閣直提學。” 『죽산안씨족보』

16) “是生諱秀崙，中進士登乙科，仕止學諭。” 『한설당연보』.

17) “是生諱軸，號鈍庵，中生進，以學行名于世，企齋申公光漢薦于朝，未及擢用，登乙科，除薇院烏坭皆不就，與金河西林石川，優遊外服，世稱湖南三高，官止牧使。” 같은 책.

18) “是生諱汝相，早世無嗣，取再從弟諱時相第二子諱世獻繼后，即主簿公諱信立之曾孫，而公之考也。” 같은 책.

19) “歸庵朴相公權，惜其才諳器局，累照望強勸不就，養心修德，陞副司果，號止齋，妣咸豐李氏士人相周女。” 같은 책.

20) “吾家落南之後，尙稱名族，而素所爲欠者，人數之終鮮也。” 『한설당유고』, 87면.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후의 가계를 살펴본 결과 안창후는 문화소양이 깊은 가문에서 자라며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는 형편도 함께 물려받았다.

2) 안창후의 생애

안창후는 7세 때부터 아이들과 놀 적에도 자못 어른의 태도가 있었고²¹⁾, 10세에 밤낮으로 끊임없이 책을 읽었고, 한 번 보면 곧 기억할 수 있는 훌륭한 기억력까지 갖고 있었다.²²⁾ 그 후에 아버지에게 사자육경을 배우고 문장의 뜻을 알아 탐색하는 식견이 고명하여 학문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²³⁾ 15세의 나이로 어머니 이씨(李氏)가 세상을 떠난 것이 무척 애통하여 몸을 보전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상에 관한 모든 일을 주문공의 예를 준수하여 치러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거상을 잘 치른다는 칭찬도 있었다.²⁴⁾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를 섬기는 데 더욱 지극하고 미진한 바가 없었다.²⁵⁾

20대에 들어와서 경전의 뜻을 탐구하고 은미한 이치를 궁구하였다. 21세에 국내 여러 선비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돌아온 후 “인도(人道)는 내 안에 있어 멀리 구하지 않아도 된다.”²⁶⁾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에 추노(鄒魯)·염락(濂洛)의 격언과 미사(美辭)에 관심을 두고 탐구하여 반드시 그 요지와 뜻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힘썼다. 또 이기(理氣)의 선후 문제와 사단칠정 등에 관하여 깊은 뜻을 발하며 울곡(栗谷)의 설을 가지고 절충하여 설파함이 명백하였다.²⁷⁾ 이는 안창후의 학문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24세에 사인(士人) 신배(頤培)의 딸에게 장가들고 내외가 존경함이 손님 대하는 것 같았고 밖에서는 끌고 안으로는 응하여 제체(齊體)의 의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남녀 사이의 강유의 도를 잃음이 없었다.²⁸⁾

21) “癸酉, 大王十九年, 公七歲, 與群兒遊戲, 頗有成人儀度.” 「한설당연보」.

22) “丙子, 大王二十二年, 公十歲, 將有遠大之志知謹學, 日夜啣唔不撤, 氣質英邁, 一覽輒記.” 같은 책.

23) “丁丑, 大王二十三年, 公十歲, 時課四子六經于司果公, 從容潛玩探蹟文義之識解高明, 日就月將, 大有進學之方向焉.” 같은 책.

24) “辛巳, 大王二十七年, 公十五歲, 六月, 丁母夫人李氏憂, 哀毀過禮若將難保, 以大人司果公深慰, 僅保軀命, 而執喪諸節一從朱文公家禮, 人稱大連之善居喪也.” 같은 책.

25) “癸未, 大王二十九年, 公十七歲, 六月, 服闋, 自此以後, 悅親養旨之道, 無所不用其極.” 같은 책.

26) “丁亥, 大王三十三年, 公二十一歲, 國內先賢古家, 林下讀書之士, 一一訪問而歸, 人道在我不必遠求, 八字特書于座隅.” 같은 책.

27) “取鄒魯濂洛格言美辭, 攻而釋之務盡其旨義致之於實履. 後至論理氣先後四端七情等說, 多發蘊奧, 而又以栗公之說, 折衷, 而說破明白.” 같은 책.

28) “庚寅, 大王三十六年, 公二十四歲. 三月, 聘全州李氏. 士人頤培女, 天默先生, 尙馨玄孫.” “辛卯, 大王三十七年, 公二十五歲. 自此居常, 內外相敬如賓, 相警以禮, 慎不悖理. 外率內應, 無違於齊體之

30대와 40대에 안창후는 주변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여러 번 맞이하였다. 31세 때는 아버지가 병에 걸려 몇 달 동안 아팠는데 안창후는 잠시도 태만해 본 적이 없었으며 섬기는 데에 조금의 귀찮음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아우마저 병에 걸리는 바람에 안창후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없었다.²⁹⁾ 아우인 창우(昌遇)가 걸린 병에는 그 어떤 치료법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해에 창우의 상을 당한다. 특히 아우가 제주와 문학 쪽에서 일정한 재능이 있었으므로 안창후도 그에게 기대가 많았는데 2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해서 매우 슬퍼하였다.³⁰⁾ 36세에는 신임옥사(辛壬獄事) 때 화를 당한 노론 계열의 김창집(金昌集, 1648년~1722년)·이이명(李頤命, 1658년~1722년)·이건명(李健命, 1663년~1722년)·조태채(趙泰采, 1660년~1722년)가 형벌을 받은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왕과 나라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였다.³¹⁾

40대에 들어와서 43세가 된 안창후는 족조 오헌공(梧軒公)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부했던 상제에 관한 예절을 지키고 조금의 어긋남이 없었다.³²⁾ 그후에 후학을 인도하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아 종일토록 가르치면서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종종(宗中)의 연소자 및 원근의 선비가 그 학행의 독실함에 감복하여 와서 수업하는 자가 많았다.³³⁾ 불과 3년 후에 아버지와 서제인 창린(昌麟)이 선후로 같은 해에 죽었다. 안창후는 아들로서 상례를 지극히 지켰는데 주막의 주인이 그의 정성에 감복하여 시중에 들어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탄식하고 애석해 하였다.³⁴⁾

이후로부터 공부에 더욱 정밀함을 더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곳곳이 앉아 손에서는 사서, 육경, 주자서, 성리전, 예경을 놓지 않았다.³⁵⁾ 안창후는 60세에 26세인 아들과 며

義, 亦不失剛柔之道.” 같은 책.

29) “丁酉, 大王四十三年, 公三十一歲. 時司果公病候呻吟積月. 惟事問醫制藥, 小無懈怠, 衣不解帶, 寢不就枕, 嘗糞侍病, 暫不離側. 又以弟病之沈綿, 其於救治之道, 靡所不用其極.” 같은 책.

30) “戊戌, 大王四十四年, 公三十二歲. 五月, 遭舍弟昌遇喪. 姿稟端雅, 才藝出天, 文學夙成, 爲世所推也, 公期待也不小. 丁酉, 偶病沉痾, 百般治療, 而竟至不救, 時年二十八也.” 같은 책.

31) “壬寅, 大王二年, 公三十六歲. 聞四大臣, 李頤命, 金昌集, 李健命, 趙泰采, 就刑設位, 痛哭曰, ‘王失四臣, 國家胡爲乎胡爲乎!’ 鄉黨, 猶危之也.” 같은 책.

32) “己酉, 大王五年, 公四十三歲, 時族祖梧軒公病篤, 臨終謂公曰, ‘吾之喪制以禮準行者, 惟君, 而已幸勿奢麗失制, 惟禮是從.’ 云云, 初終之, 節一從家禮也. 襄時祭文略有所敘, 梧軒公以學行薦官至宗廟署令及縣監. 平日所務實行, 惟禮學, 而身後之事, 遺言於公, 公於喪制, 小無違焉.” 같은 책.

33) “甲寅, 大王十年, 公四十八歲. 自後, 省養支治, 愈加精密, 雖三伏之暑, 大小之寒, 必早起盥櫛, 而謁于廟, 退而跪坐看書, 暫不蹣倚, 而手不釋四子六經近思錄朱書性理傳禮經, 而惟日不生焉. 諭掖後學爲己任, 終日教誨而不倦, 宗中年少及遠近士子, 敬服其學行之篤純, 而來受業者多.” 같은 책.

34) “壬子, 大王八年, 公四十六歲…一從周文公家禮…幕主感服其執喪之禮, 乃入市中呼人曰, ‘如此大無之岁, 却飯却魚, 而覓粥食之, 如此賢人執喪孝子, 市中諸人聞之見之否!’ 乃相與歎惜不已.” 같은 책.

35) “甲寅, 大王十年, 公四十八歲. 自後, 省養支治, 愈加精密, 雖三伏之暑, 大小之寒, 必早起盥櫛, 而謁于廟, 退而跪坐看書, 暫不蹣倚, 而手不釋四子六經近思錄朱書性理傳禮經, 而惟日不生焉. 諭掖後學爲己任, 終日教誨而不倦, 宗中年少及遠近士子, 敬服其學行之篤純, 而來受業者多.” 같은 책.

느리 이씨의 상을 당했을 때도 아들의 상을 잘 치르며 덕성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선비들이 이를 보고 실행과 덕성으로 여겨 감복하였다.

이렇게 아버지, 아우 두 명,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중에 딸까지 이어진 연속적인 죽음은 안창후의 심성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인간 세상에 관한 도리, 그리고 천명에 대한 많은 사고를 파생시켰다. 누차 천거를 받았지만 안창후는 모두 사양하고, 자연 속에서 살면서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일은 안창후가 61세 때에 한설당이라는 이름을 걸었다는 것이다.³⁶⁾ 이 당호를 보면 안창후가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는데 전념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남은 생에서도 인간 세상의 시비를 멀리하여 꾸준히 학문과 심성에만 집중하고 여러 선비와 친우들과 왕래하며 지냈다. 이렇듯 학식의 누적으로 1767년(영조 43년) 5월에 첨추(僉樞)의 은명을 받고, 또 왕이 비단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다.³⁷⁾

안창후의 만년 생활을 관찰해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이 떠나는 것을 겪은 후에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오직 문장과 학문에 전념하게 되면서 스스로 한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의 본질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1771년(영조 47년)에, 안창후는 85세의 나이로 한설당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데³⁸⁾ 떠나기 전에 입으로 경사 및 성리설을 암송하는 것이 평소와 같았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안창후의 일생을 관찰해 보면 그의 일생은 ‘효우학행’으로 칭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상을 치르는 경우 한결같이 효도를 잘 지켰으며 형제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애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였다. 이외에 학문의 길에서는 자신에게 엄격함을 요구하면서 지식을 추적하는 방향에 전념하였다. 이렇듯 그는 앎을 실천하는 태도로써 공부에서 얻은 도를 실행으로 적극 옮겼다.

한편 안창후의 일생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가장 가까운 존재들, 가족들의 죽음을 겪었다는 점이다. 소년시절에 어머니 이씨, 중년에 아우와 아버지, 노년에 아들, 며느리와 딸, 이렇듯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들, 부모님, 아우, 자식들까지 연속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누구보다 아프고 외로웠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런 외로움과 아픔을 안창후는 그의 작품 속에서 서정적인 표현으로 구현하였다.

36) “丁卯, 大王二十三年, 公六十一歲. 揭堂號曰閒說.” 같은 책.

37) “丁亥, 大王四十三年, 公八十一歲. 五月, 以耆老蒙僉樞恩誥, 又承賜帛之恩.” 같은 책.

38) “辛卯, 大王四十七年, 公八十五歲. 二月(辛卯), 初五日(丙子), 己丑時, 從容易簣于閒說堂.” 같은 책.

2. 『한설당유고』와 『유고』에 관한 고찰

지금부터는 『한설당유고(閒說堂遺稿)』와 『유고(遺稿)』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 필사본의 구성과 차이를 살펴보겠다.

『한설당집』은 1991년에 이상보가 「한설당 안창후의 시가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1989년 12월에 변시연에게서 이 책을 얻어 볼 수 있었는데 변시연의 말에 따르면 10여 책을 영인하여 보성 지역 일가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상보가 소개한 이 책은 현재 강남대학교 도서관 한실문고(등록번호 EM140969)에 소장되어 있다.

강남대학교 도서관 한실문고에 소장된 『한설당집』은 몇 가지 종류의 필사본을 복사해서 하나로 묶은 영인본이다.³⁹⁾ 소개자인 이상보는 이 책을 『한설당유고』, 『유고』, 「한설당행장(閒說堂行狀)」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외에 다른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상보는 『한설당유고』를 필사본으로, 『유고』를 목판본으로 판정하였으나, 기실 둘 다 필사본이다. 그 이유는 『유고』에도 판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안창후의 후손가에서 안창후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필사본 자료들을 모아 나름의 순서를 정해 영인 편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설당집』의 서지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는 죽산 안씨 후인 안재경(安在旻)⁴⁰⁾을 만나 원본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단독적으로 존재한 4개의 자료였다. 『한설당유고』, 『유고』, 「한설당행장」,⁴¹⁾ 그리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글⁴²⁾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설당유고』와 『유고』를 제외한, 두 개의 자료⁴³⁾는 각각 7과 3쪽밖에 안 되며, 모두 다 따로 존재하던 것인데 영인본⁴⁴⁾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고』 뒤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39) 이 영인본은 책 크기가 28.5×20.5cm이고 반광이 22.5×16.5cm이며 네 둘레는 겹줄이고 패선이 쳐 있다. 한 쪽은 12줄로 되어 있고, 각 줄에는 24자 정도씩 쓰고 있다.

40) 안재경, 죽산안씨 26세, 2020년 5월 12일에 만나 원본 자료의 사진을 찍었다.

41) 한설당행장은 영인본을 보면 『유고』에 뒤에 실려 있으며, 페이지수로 표시하면 161~167쪽이다. 그 뒤에는 湖南誌寶城校定廳에 관한 자료이다.

42) 큰 종이 한 장에 안창후를 포천(褒薦)한 글 세 편이 실려 있고 필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뒷면에 적힌 것은 낙명이 없고 글자체도 상대적으로 정서하지 않은 것에 비해 앞면에 적힌 것은 비교적 정서체로 되어 있으며 끝에 “戊辰 閏二月 二十五日 奉單人 安圭晷”이라는 필사기가 쓰여 있다. 무진년은 1928년이며, 안규석은 안창후의 5세손이다.

43) <한설당행장>은 세로 25.5cm, 가로 19cm이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글은 세로 31cm, 가로 32cm로 되어 있다.

44) 이 영인본은 책 크기가 28.5×20.5cm이고 현재 강남대학교 도서관 한실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보는 『한설당유고』와 『유고』, 「한설당행장」의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4개의 자료 이상⁴⁵⁾을 묶어 하나의 책자로 만든 것이 영인본이라 할 수 있다.

1) 『한설당유고』의 구성

『한설당유고』는 겉표지가 깔끔한 편이고, 보존 상태를 보았을 때는 크게 파손되거나 낙장된 경우가 거의 없다. 전체적인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설당연보(1~16쪽)⁴⁶⁾
- ② 한시 107수(17~42쪽)
- ③ 한설이십오문시(閒說二十五文詩)⁴⁷⁾, (43~75쪽)
- ④ 잡저(74~140쪽)
- ⑤ 가(歌), (141~150쪽)
- ⑥ 타인들이 안창후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에게 쓴 시문(151~168쪽)
- ⑦ 타인들이 쓴 안창후의 제문, 만사, 추기(169~188쪽)
- ⑧ 별록(別錄)(189~202쪽)

①은 안창후의 연보로서 그가 어떤 가계에서 태어났고, 어떤 인생의 좌절 혹은 희락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학문을 닦았고 덕성을 실행에 옮겼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설당연보」는 『한설당유고』의 다른 부분과 필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한설당연보」가 15쪽 7행에서 끝났는데 그 뒤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17쪽에 ‘閒說堂遺稿’라는 제목을 붙이고 필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설당연보」는 『한설당유고』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자료로 존재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⁸⁾ 별도의 자료로 존재하던 것을 『한설당유고』를 엮은 사람이 연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책의 가장 앞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는 안창후가 지은 한시이다. 총 80편 107수가 수록되어 있다. 안창후는 오언시, 칠

45)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이 있을 것이다.

46) 이하 쪽수는 영인본의 쪽수를 가리킴.

47) 『한설당유고』에는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

48) 그러므로 『한설당유고』와 『유고』 안에 다른 존재한 엮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최소 5개의 자료로 엮은 것으로 보인다.

언시, 절구, 율시 등 다양한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시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음전운(又吟前韻)」⁴⁹⁾이라는 한시의 경우 오언시와 칠언시로 나누어 각각 수씩 읊고 있다는 점이다.

③의 내용은 모두 다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25수의 한시와 25편의 한문 작품이며, 바로 안창후의 ‘한설이십오병시가’ 중 국문시가를 제외한 부분이다. 『한설당집』을 엮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한설이십오 중 국문시가를 제외하고 한시와 산문만 한꺼번에 묶어 놓았다.

④는 안창후가 쓴 잡저로 문 4편, 기 2편, 제문 3편, 설 5편, 주해 1편 등 총 15편이 있다. 열거하면 일상생활에 지켜야 할 예의(「日用五常」, 「居家雜儀」), 벗에게 쓴 기(「金同知元最笑仙堂記」), 자신의 심정을 표출한 문장(「閒說堂記」, 「述哀懷」, 「任天說」, 「續李友淹閒忙說」), 그리고 족조, 아우, 아들에게 쓴 제문(「祭族祖同福公壽相文」, 「哭庶弟昌麟文」, 「奠壽兒文」)과 「기삼백주해(碁三百註解)」와 「예설(禮說)」 등이다. 「기삼백주해」와 「예설」은 안창후 문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글이다.

⑤는 ‘한설이십오병시가’ 중 ③을 제외한 국문시가로 24수의 시조와 1편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한설이시오가(閒說二十五歌)라고 한다.

⑥은 안창후가 살아있는 동안에 벗들과 친족들이 그에게 써 준 시문을 모은 것이다. 주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151~164쪽)는 61세인 안창후가 한설당의 이름을 당호로 걸었을 때에 벗과 친족들이 그에게 쓴 시문인데 대체로 한설이란 이름에 나름대로 감발한 의미를 표출한 문과 시다. 문집을 보면 인위적으로 문과 시를 구별하여 문을 앞에, 시는 뒤에 배치하였다. 문이 5편이 있으나 그 중에서는 족숙(族叔) 안세제(安世濟)가 지은 문만 「한설당기병운차(閒說堂記並韻次)」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그리고 시는 총 11수인데 제목이 없이 작자의 이름만 붙어 있다. 둘째는 안창후가 1767년(영조 43년) 5월 생일날에 첨추(僉樞)의 은명을 받고, 또 왕이 비단을 내려주는 은혜를 받아 벗들이 그 잔치 자리에서 안창후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은 시다. 「정해수석운(丁亥壽席韻)」이라는 제목 하에 총 10수가 실려 있다.

⑦은 벗과 친족들이 안창후의 발인일(發靱日)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일방적으로 지은 제문(祭文)과 만사(輓詞), 훗날 추가로 종제 안창언(安昌彦)과 종질 안처홍(安處弘)이 쓴 추기(追記)다.

마지막 ⑧은 별록으로, 안창후가 역책한 후에 공의 일생 성취 혹은 덕행을 찬양하는

49) 『한설당유고』 p.23, 『유고』 p.119에서도 같은 현상이다.

글을 수록한 것이다. 그 당시의 순상각하(巡相閣下)에게 드리는 포양장 3 편과 족숙(族叔) 안재정(安載禎)이 쓴 1편의 추술(追述)로 구성되어 있다. 3편의 포양장은 보성유생(寶城儒生), 도내유생유학(道內儒生幼學), 보성유생진사유학(寶城儒生進士幼學)들이 지은 것이다. 특히 마지막 포양장에서는 안창후의 덕행뿐만 아니라 안창후의 아들인 처성(處成)과 손자 명곤(命鯤)까지도 칭송함으로써 안창후의 학식과 덕행의 반증으로 그 당시의 순상에게 보여주었다.

2) 『유고』의 구성

『유고』의 앞표지를 보면 크게 ‘遺稿’라는 두 글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옆에 “年譜一卷, 諸邑通文, 道內呈單, 行狀, 分在他秩, 故未得收集.”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설명을 관찰해보면, 『유고』를 편찬한 사람은 연보, 제읍통문, 도내정단, 행장 등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함께 묶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문 시작 부분에는 ‘한설당유고(閑說堂遺稿)’라 쓰여 있다. 이 필사본은 마지막에 수록된 시가 중간에서 그치고 있어 뒤에 낙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참고로 158쪽 이후의 내용은 『유고』의 내용이 아니라 「한설당행장」이라는 별도의 자료를 묶은 것이다.

『유고』의 세부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閑說二十五並詩歌’(1~31쪽)
- ② 문 2편과 주해 1편(「거가잡의(居家雜儀)」, 「지성인도난이문답(知聖人道難易問答)」, 「기삼백주해(碁三百註解)」)(32~41쪽)
- ③ 잡저(41~94쪽)
- ④ 附錄上(95~112쪽)
- ⑤ 漢詩109수(113~138쪽)
- ⑥ 附錄下(139~154)
- ⑦ 別錄(155~158쪽)

①의 ‘한설이십오병시가’는 같은 소제목 아래에 묶여 있는 문·한시·시가 작품들이다. 하지만 『유고』에서는 낙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심의지기(心意志氣)」의 시조 부분, 「식색(食

50) 안재경 선생을 만나 『유고』 원본을 확인했을 때 뒷부분이 뜯겨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色)의 문·한시·시조 부분 그리고 「천성현우동(天性賢愚同)」의 문의 대부분 내용이 빠져 있으며, 「자책도언무실(自責徒言無稟)」, 「명분설(名分說)」의 전체 내용도 빠졌다.

②에 속한 3편의 내용은 『한설당유고』의 경우는 잡저로 분류하고 있으나 『유고』에서는 「기삼백주해」 뒤와 3) 앞 사이에 ‘雜著’라는 두 글자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유고』를 엮은 사람이 이를 3)과 구별 지은 것으로 보여 따로 나누어 정리했다.

③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雜著’로 명명하고 있는데 주로 안창후가 타인 혹은 벗에게 올린 기, 설, 그리고 족조와 동생들에게 쓴 제문 등 여러 형식의 문이다. 『한설당유고』와 견주어 보면 「임천설(任天說)」은 대부분 낙장되었고, 「일용오상(日用五常)」, 「자설(字說)」은 아예 빠져 있다. 그리하여 임천설을 포함하고 정리하면 문 1편(「述哀懷」), 기 2편(「閒說堂記」, 「金同知元最笑仙堂記」), 제문 3편(「祭族祖同福公壽相文」, 「哭庶弟昌麟文」, 「奠壽兒文」), 설 4편(「續李友淹閒忙說」, 「任天說」, 「三子侄名字說」, 「禮說」) 등 총 10편이다.

④는 ‘附錄上’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시작하여 그후에는 안창후가 한설당이라는 당호를 걸었을 때 벗들이 그에게 쓴 문과 시가 실려 있다. 즉 『한설당유고』의 ⑥에 속한 첫 번째 부분이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책이 시문을 더 많이 실고 있다. 『한설당유고』의 ⑥에서 당호를 거는 날에 관한 문은 5편이고, 시는 11수가 있는 데 비해 여기는 문은 총 6편이고, 시는 총 13수가 수록되어 있다.

⑤는 안창후가 지은 한시 작품이다. 『한설당유고』에서는 한시를 맨 처음에 배치하였으나 『유고』에서는 ‘附錄上’ 뒤에 넣었다. 그리고 한시의 수는 『한설당유고』가 80편 107수였으나 『유고』는 82편 109수이다. 그리고 이 수량은 ‘한설이십오’ 속에 실려 있는 24수의 시와 문 끝에 붙어 있는 한시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것까지 계산하면 한시 부분에 109수, 한설이십오에 24수, 그리고 문에 8수⁵¹⁾가 있으므로 안창후가 지은 한시 수가 총 141수가 된다.

⑥은 ⑤와 호응하는 ‘附錄下’로 표시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친족과 벗들이 안창후가 역책한 후에 그에게 쓴 만사와 제문이다.

⑦은 별록으로서, 안재정(安載禎)이 쓴 문을 빼고 나면 모두 다 「정해수석운(丁亥壽席韻)」과 관련된 축하시다. 즉 앞에 언급했던 안창후가 81세 생신날에 聖恩을 받았을 때 벗들이 그를 위하여 지은 시다. 시의 수를 세면 총 11수이며, 마지막 칠언시는 낙장된 것이므로 후반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유고』의 내용도 뒤표지 없이 여기서

51) 『한설당유고』, 「金同知元最笑仙堂記」 7언율시 1수, 「哭庶弟昌麟文」 7언절구 2수, 「述哀懷」 7언절구 2수, 「任天說」 7언절구 1수, 「奠壽兒文」 7언절구 1수, 「閒說堂記」 7언율시 1수, 총 8수.

마무리되었다.

3)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비교

지금까지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세부 구성을 밝혔다. 이제는 두 필사본의 차이점을 주로 외관적 차이와 내용적 차이로 나누어 자세히 검토하겠다.

외관적 차이는 주로 크기, 종이 재질과 낙장 상황, 그리고 필체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설당유고』의 크기는 세로 29cm, 가로 21cm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고』의 크기는 세로 26cm, 가로 18.7cm로 되어 있으므로 『한설당유고』보다 작은 셈이다. 동시에 『유고』의 겉표지가 까맣고 전체적인 면모는 『한설당유고』보다 더욱 낡아 보이며 종이의 재질은 쉽게 찢어질 정도로 얇은 편이다. 낙장이 많이 존재하고 겹으로 붙여 놓은 종이가 뜯긴 경우가 많다. 특히 겉표지에 은은히 ‘유고’라고 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뒤표지는 아예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태다. 이에 비해 『한설당유고』의 서지상태는 ‘有始有終’이라 할 수 있다. 낙장도 거의 없으며, 종이가 뜯긴 상태가 없고 상당히 튼튼하고 두터운 재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설당유고』보다는 『유고』가 좀 더 정돈된 글씨체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⁵²⁾

두 필사본의 내용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차이는 『한설당유고』의 ①인 「한설당연보」가 『유고』에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설당유고』에는 한시가 총 107수가 있지만, 『유고』에는 총 109수가 있다. 그리고 두 필사본에서 한시를 배치하는 순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설당유고』에서는 한시 107수를 「한설당연보」 뒤 모든 작품의 시작 부분에 배치하여 중요시한 반면에 『유고』에서는 한시 109수를 ④부록 상과 ⑥부록 하 사이에 넣었다. 한편, 차이가 나는 두 수의 한시는 모두 칠언시이며, 제목은 「진외재종형조태성만(眞外再從兄趙泰聖挽)」⁵³⁾과 「유감(有感)」⁵⁴⁾이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유감」이라는 시의 끝에 “오른쪽 고시는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⁵⁵⁾라는 세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한시를 무슨 이유로 빼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설당유고』에는 이 시가 없다. 이외에 또 다른 미소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직후우승사

52) 이 부분은 안재경 선생을 통해 확인한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원본에 기초하여 설명한 것이다.

53) 華封人祝獨能全, 抱朴儀形亦保天, 厭世乘雲雖不允, 遺風勤厚二難傳. 『유고』 132 쪽.

54) 一派青山景色幽, 前人田土後人權, 後人權得莫歡喜, 更有權人在後頭. 『유고』 131 쪽.

55) 右古詩當削去. 이 세주는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후대의 누군가가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백은작감송시, 이수(壽職後又承賜帛恩作感頌詩, 二首)라는 한시가 있는 데 비해 두 필 사본에서 배열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 『한설당유고』에서는 이 시를 마지막 자리에 배치하고 있는데 『유고』에서는 끝에서 4번째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해동우」라는 시가 있는데 『유고』에서는 「解凍雨」⁵⁶⁾로 『한설당유고』에서는 「解冬雨」⁵⁷⁾로 ‘동’자의 표기를 달리하고 있다.

세 번째, 『한설당유고』에서 ‘③한설 25문·시’와 ‘⑤가 25’로 분리되어 있는 데 비해 『유고』에서는 ‘한설이십오병시가(閒說二十五并詩歌)’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이를 맨 앞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유고』에서 한시·한문산문·국문시가를 통합하고 있지만 낙장으로 인해 빠진 작품이 상당히 많다. 즉, 「심의지기(心意志氣)」의 시조 부분, 「식색(食色)」의 한문산문·한시·시조 부분 그리고 「천성현우동(天性賢愚同)」의 문의 대부분 내용이 빠졌으며, 「자책도언무실(自責徒言無實)」, 「명분설(名分說)」도 전체가 탈락했다.

넷째, 『한설당유고』에서 ④잡저는 총 15편이 있는데 『유고』에서는 총 10편만 있다. 이는 『유고』의 ②에 속한 「거가잡의」, 「지성인도난이문답」, 「기삼백주해」 등 3편의 작품이 ③잡저와 분리 수록된 것과 「日用五常」, 「字說」이 통째로 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유고』의 10편 잡저 중에서 「任天說」은 제목과 2행의 내용만 남아 있고 나머지 내용은 낙장되었다.

다섯째, 『한설당유고』의 ⑥ 타인들이 안창후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에게 쓴 시문은 주로 ‘한설당의 이름을 당호로 걸었을 때에 벗과 친족들이 그에게 쓴 시문’과 「丁亥壽席韻」에 관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유고』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④부록 상과 ⑦별록으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 수량은 『한설당유고』 ⑥보다 더 많이 실고 있다. 『한설당유고』 ⑥에는 당호를 거는 날에 관한 문이 5편, 시가 11수가 실려 있는 데 비해 『유고』 ④부록 상에는 문이 6편, 시가 13수가 실려 있다. 마찬가지로 『한설당유고』 ⑥에 속한 또 하나의 내용 「丁亥壽席韻」의 경우 총 10수가 있지만 『유고』 ⑦별록에는 총 11수가 실려 있다. 늘어난 시는 ‘광릉(廣陵) 이진성(李鎭性)’이라는 문인이 쓴 시구 후에 이어진 칠언시⁵⁸⁾인데 갑작스럽게 낙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다.

여섯째, 『한설당유고』의 ⑦ 타인들이 안창후가 역책했을 때 썼던 제문, 만사와 추기가 수록된 부분은 『유고』의 ⑥부록 하인데 역시도 양자 사이에 조금의 차이가 난다. 『한설

56) 和氣潛從地底炎, 陰陽調若羹梅盐, 霏霏解盡山川凍, 功畢玄冥舊跡斂. 『유고』 127 쪽.

57) 『한설당유고』, 31 쪽.

58) 華街初下薛蘿門, 加額親朋笑語溫, 南極皇光耀賀席, 北山松로 되어 있다. 『유고』 131 쪽.

『당유고』에서는 ‘발인일제문급만사(發靱日祭文及輓詞)’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긴 제문이 먼저 나오고 만사와 시가 뒤에 실려 있다. 이에 반해 『유고』에서는 ‘만사(輓詞)’라는 제목 하에 짧은 내용인 시 혹은 만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祭文’이라는 이름과 함께 긴 제문을 실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한설당유고』와 『유고』는 모두 다 별록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두 별록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한설당유고』의 ⑧인 별록은 당대 사람들이 안창후가 역책한 후에 공의 일생 성취 혹은 덕행을 찬양하는 시문을 그 당시의 순상각하에게 드리는 포양장 3편과 안재정이 쓴 1편의 추술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유고』의 ⑦인 별록은 안재정이 쓴 문만 빼면 모두 다 「丁亥壽席韻」과 관련된 축하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한설당유고』의 ⑧인 별록에 수록된 3편의 포양장은 『유고』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외관적 차이 및 내용적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비교

번호	구분	한설당유고	유고	차이	차이의 내용
1	한설당연보	있음	없음	유무	-
2	한시	80편, 107수	82편, 109수	2수	『유고』가 2수 더 많음
3	한설이십오 병시가	있음	있음	통합과 분리	『한설당유고』에서는 歌 를 따로 기재함
4	잡저	15편	13편	2편	「日用五常」, 「字說」 탈 락, 「任天說」 내용 일실
5	당호 거는 날에 관한 시문	문 5 편, 시 11 수	문 6 편, 시 13 수	문+1, 시+2	『유고』에 더 많이 수록되었고, 배치된 위치 다름

6	丁亥壽席韻	시 10 수	시 11수	+1	-
7	타인이 안창 후에게 쓴 제문, 만사	있음	있음	배열 순서의 차이	『한설당유고』는 제문-만사, 『유고』는 만사-제문의 순서로 수록됨
8	별록	도내유생이 쓴 포양장 3편	없음	유무	『유고』에는 포양장이 없는 대신에 「丁亥壽席韻」이 이곳에 수록됨

지금까지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구성과 두 필사본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한 가지 더 보충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한설당유고』 ⑤인 한설이십오가 마지막 쪽에 적힌 다음의 세주와 관련된 내용이다.

本集에는 人道로부터 名分說까지 文韻歌가 連히 記載인란다
 右冊에는 歌자로 記載 息⁵⁹⁾

위를 보면 『한설당유고』를 엮은 사람이참고한 저본은 한설이십오의 문·시·가가 함께 기재된 것인데 이를 문·시와 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집한 것이 『한설당유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右冊은 바로 歌를 따로 배치한 『한설당유고』를 가리키고, 本集은 『유고』를 지칭할 수도 있고 혹은 『유고』가 참고한 다른 저본일 수도 있다. 비록 이 세주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어떤 연유로 이 세주를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주를 통해 『한설당유고』와 『유고』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고』가 『한설당유고』보다 먼저 편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한설당유고』에 비해 『유고』가 선행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59) 『한설당유고』, 150면.

한편,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한설당유고』에 없는 내용이 『유고』에 있기도 하고, 또 『유고』에 빠진 내용이 『한설당유고』에 있기도 하므로 우리는 『한설당유고』와 『유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이를 『한설당집』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안창후의 문학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표2> 『한설당집』의 구성

구분	내용	비고
1	한설당연보	-
2	한설이십오병시가	문·시·가 모두 포함
3	한시 109수	-
4	잡저 15편	문 4편, 기 2편, 제문 3편, 설 5편, 주해 1편
5	부록 상	문 6편, 시 총 13 수
6	부록 하	타인들이 안창후가 역책했을 때 썼던 제문, 만사와 추기
7	별록1	포양장 3 편과 안재정이 쓴 1편의 추술
8	별록2	정해수석운(丁亥壽席韻)
9	한설당행장	-
10	호남지보성교정정(湖南誌寶城校定廳)에 관한 자료	-

Ⅲ. 안창후의 문학 세계

이 장에서는 안창후의 문학을 한시, 산문 그리고 국문시가 셋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정서적 특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시의 특성

앞의 2장에서 안창후의 한시가 총 82편, 109수라고 했는데 이는 산문에 붙어 있는 한시 8수와 한설이십오의 24수의 한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본 절에서도 이 두 부분의 한시를 제외한다. 109수 한시를 양식별로 정리하면 오언절구 21수, 오언율시 3수, 칠언절구 51수, 칠언율시 31수, 삼오칠언시 1수, 기타 2수⁶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안창후가 평생 동안 지은 한시 규모는 크다고 하긴 어렵다. 그리고 안창후는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편에 한 수 이상의 한시를 포함한 경우에는 칠언절구와 칠언율시, 혹은 칠언절구와 오언절구의 조합으로 많이 나타났다. 더불어 「한설당연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할 때 그의 한시 작품은 대체로 중년과 만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창후 한시의 주제적 내용은 크게 만시(輓詩), 철리(哲理)시, 개인 서정시, 친족과 지기(知己)와 교류한 교유시, 임금을 찬미하는 송축시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창후가 지은 만시는 총 13편, 21수가 있다. 주로 애통한 심정으로 고결한 품성과 깊은 학식을 가진 친족과 몇 명의 벗에게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족숙세윤만(族叔世允挽)」, 「백우충숙만, 삼수(白友忠叔挽, 三首)」 등이 있다. 철리시는 글자 그대로 ‘이(理)를 표현하는 것을 주로 삼은 것이다. 대부분의 철리시의 목적은 의리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인생, 감각과 마음, 감성과 이성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통하여 시의 미와 지혜의 매력을 보여준다. 또 상대적으로 협의적인 철리시는 사물의 본질과 변화의 규율을 설명하거나 서정과 서사 과정에서 의리를 밝히는 것을 통하여 선명한 철학적인

60) 두 시는 「감우산구허(感牛山舊墟)」와 「내구이춘엽만, 십구구(內舅李春葉挽, 十九句)」이다. 앞의 시는 5언 4구의 끝에 ‘下二句落’이라는 세주가 붙어 있다. 그래서 6구 형태의 시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내구이춘엽만, 십구구」에서 십구구라고 한 것이 19언 38구인 것을 참고할 때 탈락된 그 2구는 2언 4구를 판단된다. 따라서 「감우산구허」는 오언율시로 이해된다. 뒤의 시는 19언 38구로 이루어진 4언시이다.

색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창후의 철리시는 거의 다 두 번째의 경향과 가까운 작품이다. 그의 한시 중에서 선명하게 유학적인 사상인 오상(五常) 혹은 心과 性을 다루는 작품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한다. 대표로 들면 「성(性)」, 「심(心)」,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등이 있다. 서정시는 직접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토로하고 이로써 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안창후의 서정시에서는 어떤 일상적 현상과 경치를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토로하는 것을 통하여 서정의 목적에 도달한다. 안창후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것을 감탄하고, 눈앞의 어떤 경치를 봐도 그 대상을 빌려 자신의 내면을 시로 표출하였다. 이런 부류에 속한 작품은 「피우산중고촌우음(避寓山中孤村偶吟)」, 「견우중쌍비접(見雨中雙飛蝶)」, 「견전산백학오위목동이탄안암(見前山白鶴誤謂牧童而歎眼暗)」 등이 있다. 친족과 지기(知己)와 나누는 교유시는 안창후의 개인 사교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그 내용은 대체로 그들과 송별하며 나누는 깊은 우정이 담긴 장면, 벗에게 감사하거나 술회하는 마음, 혹은 친족과 벗에게 좋은 일이 있어 축하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송수문장종인동일부경이수(送守門將宗人東一赴京二首)」, 「우차금동지수직운이수(又次金同知壽職韻二首)」, 「견백생과장시즉차이명무실(見白生過獎詩即次以明無實)」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찬미하는 송축시는 총 2편 6수로 각각 「송감세성은, 사수(頌減稅聖恩, 四首)」, 「수직후우승사백은작감송시, 이수(壽職後又承賜帛恩作感頌詩, 二首)」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임금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칭송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수직(壽職)⁶¹⁾ 후에 임금이 비단을 내려주신 은혜가 있어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안창후가 지은 한시의 형식과 주제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분류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자세하게 그의 한시 작품을 분석하고 그의 시세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불우한 신세 한탄

안창후의 일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철된 가장 큰 좌절은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을 그의 한시에서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의 개인 서정시 안에서 혹은 벗에게 지은 시 속에서 이런 현실적 상황에 괴로워하는 심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시에서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두 단계로 나

61)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벼슬아치와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

누어 나타내고 있다. 첫 단계는 과거가 순조롭지 않으므로 답답해하고 방황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늙은 나이에 여전히 출세하지 못하여 포기하고 학문에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포기는 그가 원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미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나이도 들어 욕심을 억제한 결과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회재불우(懷才不遇)한 유감이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창후와 깊은 우정을 맺은 한 선비가 있는데 이 선비는 수원(水原) 출신의 백사찬(白思燾)이다. 그는 안창후에게 시를 지어 많이 칭찬하였다. 안창후는 그의 과찬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였다. 제목은 「견백생과찬시즉차이명무실(見白生過獎詩即次以明無實)」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緬我曾當侍下居
欲遵家訓少年初
喫餘菽粟今何似
望盡官牆尙自如
動作常招朋友謗
設施全負聖賢書
幸蒙吾子不遐棄
勤勉豈云小補歟

생각해보니 내 일찍이 시하로 거하며
소년 초에 가훈을 따르고자 하였네.
남긴 속속(62)을 먹었으나 지금 얼마나 비슷한지?
끝까지 관아 담장을 바라보았으나 아직도 그대로다.
동작은 늘 친구들의 비방을 불렀고
계획은 다 성현의 책을 저버렸네.
다행히 그대가 날 내치지 않음을 입어
부지런히 힘쓰니 어찌 작은 보탬이라 하리오?⁶³⁾

이 시는 칠언율시이고 전 6구는 모두 다 안창후가 자신의 심사(心事)를 상대방에게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추억에서 현실적으로 다방면으로 상대방에게 그의 경력을 서술하고 있다. 수련을 보면 안창후가 소년 시절에 집에서 시하⁶⁴⁾로 부모를 모실 때 가정의 가르침에 따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바로 과거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안창후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며, 여러 차례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으나, 급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함련에서는 관아 담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끝까지 벼슬에 나가는 것을 꿈 꾸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벼슬에 집착한 나머지 친구들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유학의 길에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안창후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늘 옆에서 권면해 준 것이 백사찬이었으므로 안

62) 속속지문(菽粟之文). 콩이나 조와 같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글. 일반 사람들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글. 세상에 널리 통하는 아주 쉬운 글.

63) 『한설당유고』 20면.

64)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를 모시는 사람, 조부모(祖父母) 또는 부모(父母)가 생존(生存)한 사람.

창후는 그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

有畏中心敬	마음 한가운데 두려움과 공경함을 지니고서
居幽世事忘	그윽한 곳에 거하며 세상일 잊었노라.
此爲權放漸	이렇게 권도(權道)를 점점 내려놓게 되자
減却客愁長	객수가 늘어남을 덜어 버렸다네. ⁶⁵⁾

이 시의 제목은 「피우산중고촌우음(避寓山中孤村偶吟)」으로 산 속 외딴 마을로 피해 우거하다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읊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안창후가 무엇을 피하려 산속에 들어와 우거한 것인지 승구와 결구 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승구에서 멀고 조용한 데 살며 세상일을 다 잊는다고 한 것을 보면 여기의 세상일은 시끄럽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결구를 보면 안창후가 이 마을에 와서 세상의 모든 번거로운 일을 멀리하여 결국은 근심을 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창후가 자신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순조롭지 않은 과거의 길과 인간 세상에 대한 고민과 애수(哀愁)로 가득찬 시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애수는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창후의 시에는 봄이 자꾸 나타난다.

問爾雙飛蝶	너에게 묻노라 짝지어 날아가는 나비야
如何舞雨中	어찌하여 빗속에 춤을 추느냐?
不嫌沾濕苦	날개 젖는 고통을 꺼리지 아니하고
惟恐失春風	오직 봄바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구나. ⁶⁶⁾

이 시의 제목은 「견우중쌍비접(見雨中雙飛蝶)」이다. 짝을 지어 날아가는 나비는 바람비를 두려워하지 않아 오직 춘풍을 향하여 추구는 의지를 잘 묘사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으로 쌍비접을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담고 있다. 빗속에 날아가는 쌍비접만 봤는데 시인 자신도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장면을 보고 자신의 정서를 몰입하고 읊은 것이다. 그러면 이 시 안에 담고자 했던 시인

65) 『한설당유고』 17면.

66) 『한설당유고』 17면.

의 주관적 생각은 무엇일까?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춘풍이다. 춘풍은 봄철에 불어오는 바람인데 여기서의 봄은 임금을 가리키고, 봄바람은 임금이 자신에게 특별히 봐 주거나, 혹은 임금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시에서 쌍비접에게 물어본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시인이 자신에게 물어본 것이기도 한다. 과거의 길이 순조롭지 않아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물기에 젖은 것을 시인이 고통으로 정의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四序廻環處
 人生變白頭
 既嘆更起看
 春日照東樓

네 계절이 돌고 도는 사이에
 인생은 백두로 변했다네.
 이미 탄식하고 다시 일어나 보니
 봄 해가 동쪽 누각을 비추네.

一氣運行二十四
 此中荏苒會元年
 星躔改易無非理
 知命吾人莫怨春

만물의 원기가 이십사 번 운행함에
 이 가운데 조금씩 지나 새해를 맞이하네.
 별자리가 바뀌는 건 이치에 어긋남이 없으니
 천명을 아는 우리는 봄을 원망하지 말아야지.⁶⁷⁾

위에 있는 시의 편명은 「차와장제야운이수(次臥獐除夜韻二首)」로 여기에서도 봄이 각 한 번씩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다. 이 시의 내용은 안창후가 만년에 새해가 오기 전, 즉 새것과 옛것이 경질되는 제석 날에 그가 인생에 대해 감탄한 것이다. 첫 번째 시의 기구와 승구에서는 안창후가 사계절이 몇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는 사이에 그가 벌써 백발이 될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는 이룬 것이 없다는 의미로 내포되어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이렇게 이룬 것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새해를 맞아 나이를 더 먹게 된 자신을 반추하고 있다.

두 번째 시 기구와 승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십사절기가 순환함에 따라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감탄하고 있다. 그리고 안창후는 이런 세월의 흐름과 성신 궤도의 변화가 모두 다 이(理)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천명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절의 바뀔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창후가 81세 때 수직⁶⁸⁾을 받은 후 임금에게 비단을 내려주는 은혜를 받아 임금에게 감사를 올

67) 『한설당유고』 23면.

68) 해마다 정월(正月)에 80세 이상(以上)의 관원(官員) 및 90세 이상(以上)의 백성(百姓)에게 은전(恩

린 「수직후우승사백은작감송시, 이수(壽職後又承賜帛恩作感頌詩, 二首)」의 기구와 승구를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疎才曾未顯	재주가 부족하여 일찍이 드러나지 못했었는데
至老狼蒙恩	늘그막에 이르러 외람되게 은혜를 입었도다.
拜祈迎國祿	절을 올리고 국록을 맞이하여 기원하나니
聖壽及王孫	임금의 만수무강 왕손에까지 미치소서. ⁶⁹⁾

2) 유교적 도(道)의 표출

안창후의 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시를 ‘도’를 담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때 그는 작품 속에서 한시의 서정적인 기능보다는 재도론(載道論)적 효과를 더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도는 그가 제창하려는 유교적 도덕이념과 가치표준을 가리킨다. 즉, 그는 한시에 도를 담아 사람을 교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안창후가 창작한 이 부류에 속한 대표적인 한시들은 「성(性)」, 「심(心)」으로 시작되어,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그 다음에 「불인(不仁)」, 「무의(無義)」, 「무례(無禮)」, 「무지(無智)」, 「무신(無信)」, 「계태약(戒太弱)」, 「계태강(戒太剛)」 등으로 연속적으로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맨 앞에 배치된 「성(性)」을 한번 보자.

感仰天生古聖人	우러러 옛 성인을 낳은 것을 감동하였으나
不知秉得厥初均	그 고름을 보존할 줄 몰랐네.
鮮能乃復自昏寤	스스로 어둠에서 깨어나 회복하는 것이 적으니
茅塞丹田總失真	단전이 막혀 참됨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네. ⁷⁰⁾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창후가 주자학에 대응하는 성의 함의를 자신의 한시에서 명백히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창후가 천명지성(天命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대해 논술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

典)으로 주던 벼슬.

69) 『한설당유고』 41면.

70) 『한설당유고』 25면.

터 천품을 받으며, 또 이 천성을 모두 다 갖고 균등하게 받는다는 것이 바로 천명지성이
 다. 이는 바로 이 한시 앞 2구와 대응한 내용이다. 이렇듯 하늘이 부여한 천성은 사람의
 몸에 존재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氣가 변화함에 따라 각자 다른 기질이 생긴
 다. 바르게 통한 기에서는 맑은 기와 탁한 기가 있는데 맑은 기를 얻으면 지혜로운 사람
 이 되고 탁한 기를 얻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게 변화하
 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려 이 시의 마지막 2구를 보면 바로 이해될 수 있다. 어둡고
 어리석은 것은 바로 탁한 기를 얻어서 쉽게 깨우치지 못한 것인데 이는 기질지성을 가리
 킨 것이고, 마지막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늘이 최초로 부여해 준 천명지성
 을 잃었음을 가리킨다. 안창후는 이렇듯 한시를 통하여 자신이 전달하려는 성의 이념과
 천명지성의 중요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외 그는 오상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한시를 빌려 서술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여기서는 「仁」과 「不仁」을 예시로 골라 분석하겠다.

皇天載德地蹈仁
 天地德仁賦與人
 居首五常至廣大
 行無間斷可眞純

하늘이 덕을 싣고 땅이 인을 따르자
 천지의 덕과 인이 사람에게 부여하되.
 오상의 처음에 위치하여 넓고도 크니
 행함에 간단함이 없어야 참으로 순수할 수 있다네.⁷¹⁾

不可與言者不仁
 施無恩意行無純
 本然喪盡襟裾馬
 貌狀雖人豈是人

함께 말할 수 없는 자는 어질지 못하여
 베풀기에 호의 없으며 행실에 순수함이 없도다.
 본연의 천성을 완전히 잃어 말이 옷을 입은 듯하면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지만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⁷²⁾

위에 있는 두 수의 한시 중 먼저 첫 번째 것을 보자. 안창후는 이 시의 기구와 승구에서
 인의 원천을 천지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구에서 인이
 오상 중의 첫 번째 항목으로서 고차원의 지위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하고 결구
 에서 청자에게 인을 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꼭 같이 행하여야 참되고 올바른
 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창후는 이 시에서
 오상의 다섯 가지 항목 중 처음으로 나타나는 인의 생성, 인의 거처, 인의 광대함, 그리
 고 순한 인의 유지법을 각각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그가 추구하고

71) 『한설당유고』 26면.

72) 『한설당유고』 26면.

제창하려는 인에 관한 원리와 가치를 청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인」에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우리에게 인에 관한 도리를 밝혀주었다면, 뒤에 있는 「불인」에서는 비유를 통하여 더욱 강렬한 풍자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두 번째 시 앞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불인한 자와 교류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불인한 사람이 베풀 때 안 좋은 동기를 갖고 있고 동작할 때 순수함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불인하고 본연의 성을 잃은 자를 옷을 입은 말의 이미지를 빌려 매서운 비유를 통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지만 결국 인간이 아니라는 풍자로서 표출하고 있다.

이는 불인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인함과 순한 인을 유지함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안창후가 「義」와 「無義」, 「禮」와 「無禮」, 「戒太弱」, 「戒太剛」 등 조합에서도 이렇듯 한 가지의 조목을 선택하여 두 수의 한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써 먼저 그가 전달하고 가르치려는 의리의 중요성을 표출한 후에 부가적으로 이런 이상적인 도덕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안창후의 재도시는 바로 위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성리학과 전통적인 유가적 이념을 담았다. 특히 그의 재도시는 구마다 그가 제창하려는 주제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명시적으로 이념의 기본적 존재원리를 설명하고 그들의 불가 대체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창후는 한시를 일종의 매개물로 취급해 사회에서 존재하던 혼란스럽고 못된 도덕지향을 개조하고 올바르게 시도하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지(志)와 진(眞)의 직설적 표현

앞에서 열거한 한시의 언사(言辭)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안창후가 시를 지을 때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반대로 상당히 직설적이고 명시적으로 본인의 심정과 사고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감성적 정서를 시를 빌려 표현하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창후 본인이 한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閑翁豈是好吟詩
 詩是閑翁立志時
 威武曾聞難可屈
 貧困今覺不能移

한가한 늙은이 어찌 시를 읊는 것을 좋아하는가?
 시는 한가한 늙은이가 뜻을 세울 때 나온다네.
 일찍이 권세와 무력에 굴복할 수 없음을 들었고
 빈곤함에도 이제는 능히 옮길 수 없음을 깨달았네.

知天賦與從今始
 存我秉彝自此期
 或恐因循徒費日
 閑翁豈是好吟詩

閑翁豈是好吟詩
 詩是閑翁革舊時
 守靜戒無煩擾事
 整容思祛懶慵私
 存天遏欲身亨泰
 惡異喜同志險危
 淨洗時時加猛省
 閑翁豈是好吟詩

하늘이 부여한 것을 알게 됨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타고난 천성을 보존함 이로부터 기약한다네.
 혹여 머뭇거리고 헛되이 세월만 낭비할까 두려우니
 한가한 늙은이 어찌 시를 읊는 것은 좋아하는가?

한가한 늙은이 어찌 시를 읊는 것은 좋아하는가?
 시는 한가한 늙은이가 옛 것을 고칠 때 나온다네.
 조용함을 지켜 번잡하고 어지러운 일이 없도록 경계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게으른 사욕을 없애고자 생각하네.
 천성을 보존하고 욕망을 막으면 몸이 형통하게 되고
 다툼을 싫어하고 같음을 좋아하면 뜻이 위험해진다네.
 때때로 깨끗이 하고 깊은 반성을 더하니
 한가한 늙은이 어찌 시를 읊는 것은 좋아하는가?⁷³⁾

이 시는 「견천묵당효강즉수미음역음, 이수(見天默堂效康節首尾吟亦吟, 二首)」라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안창후가 시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안창후는 시를 좋아하고 시를 짓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시에서는 뜻을 세울 때 그 뜻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시를 읊는다는 것을 통하여 심성수양에서 노력하고 얻은 결과를 시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한시 창작을 통해 그는 어떤 권력이나 무력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빈곤이라도 그의 마음을 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타고난 천성을 보존하려고 하면서도 머뭇거리고 세월을 허비할까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에서는 한시를 창작할 때 옛 것을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해 시가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다. 이 효과는 바로 조용함을 지키려 하면 어지러운 일이 없게 되고, 몸과 얼굴을 가지런히 하면 게으른 사욕이 사라진다는 것 등을 가리킨다.

한편 시의 머리와 끝에서 모두 다 “한가한 늙은이 어찌 시를 읊는 것은 좋아하는가?”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있지만 그 내포적 의미는 안창후가 시를 중요시하며, 시를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안창후는 이 시를 일종의 수미상관 형식으로 창작함을 통하여 그가 전달하려는 유학적 이념에 대한 강조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3) 『한설당유고』 25면.

이렇듯 그는 한시를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분으로 인식하다가 한시의 미학에 관하여 점차 자신만의 감상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는 이런 감상 능력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한시를 창작하던 작법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한시에서 문제점을 포착하고 거기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비판하기도 하였다. 「탄말세시망(嘆末世詩亡)」을 보면 안창후의 작시법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알 수 있다.

古詩去飾直言志	옛 시는 꾸밈없이 직접적으로 뜻을 말했으나
今律粉粧摠失真	지금의 시는 꾸미고 또 꾸며 진실함을 다 잃었다네.
雖然用意編辭地	비록 용의주도하게 말을 엮고 있었으나
僞實難逃有眼人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과 거짓을 숨길 수 없다네. ⁷⁴⁾

이 시에서 안창후는 지금의 시대를 말세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가 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옛날의 시와 지금의 시를 대비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의 시가 화려함만 추구하고 진실함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안창후가 한시를 창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박하고 직설적이면서 진실함을 구현할 수 있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말을 다듬어 표현하더라도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안창후가 본인의 한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한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안창후가 생각하는 한시의 모습은 志와 眞이 제대로 구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志는 자신의 뜻과 감오이고 眞은 참다운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한시 창작에서 늘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자신의 지향을 표현하고 참다운 감정을 전달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창후는 시적 언어를 사용할 때 화려하고 심오한 수식어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박하고 꾸밈없는 직접적인 언어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안창후는 그의 시에서 사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한시에서는 공간을 다룰 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거시적인 공간에서 미시적인 공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적 묘사에서도 먼 과거(젊은 시절/옛)부터 가까운 현재(늙어진 후/지금)에 이르는 순서를 선호한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그의 시는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강렬한 풍자와 비판을 담은 작품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의 한시에서는 사경 혹

74) 『한설당유고』 35면.

은 역사적 인물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를 이루진 않으며 그 대신 자신의 지, 감정 그리고 유학적 용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출세하지 못한 국면 앞에서 울분하고 또 울분하다가 유학에 더욱 빠지면서 유학적 사상을 시로 담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시를 통해 자신의 심지와 천성을 보존하려 하였는데 이 모든 행동은 다 그가 현실적 좌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던 수단이자 이상 추구의 일환이었다. 즉, 그는 출세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향촌에서 사는 선비로서 시를 빌려 사회의 올바르지 않은 문제점을 바로 잡고 직설적 언어 혹은 강렬한 비판을 이용하는 것을 통하여 바른 풍습으로 바꾸려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사상 개조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의 사회적 개조는 안창후가 이상적인 유학적 가치표준을 위주로 삼은 개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처한 현실적 고난에 대한 시인의 우려 혹은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를 보면 그의 사상 개조는 좁은 의미에서 출발하고 노력했던 것이며 큰 차원에서 민생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2. 한문 산문의 특성

앞서 안창후가 창작한 한시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안창후가 쓴 산문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한설이십오’ 중에도 한문 산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별도로 살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하며 나머지 잡저 15편을 위주로 검토하겠다. 15편의 산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3> 산문 15편 목록

번호	제목	주제	비고
1	日用五常	일상에서 오상에 대한 가르침	-
2	居家雜儀	거가의 여러 예의	-
3	知聖人道難易問答	성인의 도를 안다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에 관한 문답의 기록	-

4	金同知元最笑仙堂記	김원최의 당호인 소선에 관한 기	칠언율시 1 수 포함
5	祭族祖同福公壽相文	족조에 관한 제문	-
6	哭庶弟昌麟文	서제에 관한 제문	칠언절구 2 수 포함
7	述哀懷	가족들이 하나씩 떠난 과정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제문	칠언절구 2 수 포함
8	任天說	생사와 관련 지어 하늘이 가진 자연의 리를 서술한 내용	칠언절구 1 수 포함
9	字說	윤집궐중(允執闕中)과 비슷한 이념에 관한 설	-
10	三子侄名字說	아들과 조카에게 지은 이름의 의미와 기대에 대한 설	-
11	奠壽兒文	아들에 관한 제문	칠언절구 1 수 포함
12	碁三百註解	「기삼백」에 속한 역법(曆法)에 관한 주해	-
13	閒說堂記	당호에 관한 설명	칠언율시 1 수 포함
14	續李友淹閒忙說	벗이 자신의 당호에 관하여 쓴 문장에 답하여 지은 설	-
15	禮說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등의 순서와 기준을 정리한 내용	-

위의 표를 보면 비록 15편에 불과하지만 문답, 제문, 설, 기, 주해 등 다양한 형태의 산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유학적인 도덕이념과 예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외에 벗과 교유하는 문장,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학문적 조목에 대한 이해와 이를 설명하는 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중 「일용오상(日用五常)」과 「거가잡의(居家雜儀)」 그리고 「예설(禮說)」 등 세 편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일상적 삶에 필요한 기본 윤리 제시

안창후는 향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백성이 윤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를 근심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다. 따라서 그는 문을 통해 자신이 정리한 행동거지, 대인관계, 사회활동 등에 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그가 가문에,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제시해 준 글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한 글이 있는데 「일용오상(日用五常)」이 바로 그 것이다.

몸가짐에 4가지 어긋남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자신을 중하게 여기기만 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윗사람을 섬기는 데에 어긋나고, 스스로 가벼이 여기기만 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에 어긋나고, 말만 잘하고 과묵하지 않으면 감싸주는 데에 어긋나고, 과묵하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접대하는 데에 어긋난다. 군자는 예로써 절제하여 반드시 어긋남이 없기를 기약해야 한다. 일을 시행함에 4가지 상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주어야 옳은데 주지 않으면 인색함에서 상함이 있고, 주면 안 되는데 주면 은혜에서 상함이 있고, 취할 만한데 취하지 않으면 청렴에서 상함이 있고,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하면 탐함에서 상함이 있다.⁷⁵⁾ 군자는 의로써 재단하여⁷⁶⁾ 반드시 상함이 없기를 기약해야 한다. 사람을 사귄데 4가지 빠짐(지나침)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악함을 알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고,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선함을 알지 못하고 악에 빠지고⁷⁷⁾, 그 그릇됨을 알지만 옳음에 빠지고, 그 그릇됨을 알지만 옳음을 알지 못하고 그릇됨에 빠진다. 군자는 인으로써 밝혀 반드시 빠지는 것이 없기를 기약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을 다스림에 4가지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온유한 방도만 좋아하고 강하게 결단하는 것이 없으면 나약함에 잘못되고, 강하게 결단하기만 좋아하고 온유한 방도가 없으면 사나움에 잘못되고, 밝게 분별하기만 좋아하고 오점을 감추

75) 취하면 ~ 있다: 군자는 의로써 재단하여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얼핏 보면 취할 만하고, 자세히 보면 취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그를 취하면 청렴을 상한다. 얼핏 보면 줄 만하고 자세히 보면 주지 말아야 할 경우에 주면 은혜를 상하며, 얼핏 보면 죽을 만하고, 자세히 보면 죽지 말아야 할 경우에 죽으면 용명을 상한다.[可以取, 可以無取, 取, 傷廉. 可以與, 可以無與, 與, 傷惠. 可以死, 可以無死, 死傷勇]”라고 말하였다.

76) 군자는 ~ 재단하여: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해설하면서, 주희가 “사람은 음양오행의 수기(秀氣)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성인(聖人)은 그 수기 중에서도 빼어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행하는 것은 중이며[其行之也中], 그 처하는 것은 정이며[其處之也正], 그 발하는 것은 인이며[其發之也仁], 그 재단하는 것은 의이다.[其裁之也義.]”라고 말하였다.

77) 미워하는 ~ 빠지고: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사랑하면서 그 악을 알고 미워하면서 그 선을 안다.[愛而知其惡, 憎而知其善.]”라고 말하였다.

어주는 것이 없으면 자세히 살피는 데서 잘못되고, 오점을 감추어주기만 좋아하고 밝게 분별하는 것이 없으면 어두운 데서 잘못된다. 군자는 지혜로써 법으로 삼아 반드시 잘못이 없기를 기약해야 한다. 무릇 위사람을 섬기는 것,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 감싸주는 것, 접대하는 것은 이 예를 두어 절제함이 아닌 게 없지만, 진실로 이 신(信)이 없으면 예가 순일(純一)⁷⁸⁾할 수 없고, 그 인색함을 제거하고 은혜를 채우며, 탐하는 것을 막고 청렴에 부합하는 것은 이 의를 두어 재단함이 아닌 게 없지만, 또한 이 신(信)이 없으면 장구(長久)⁷⁹⁾할 수 없다. 인의 사랑하고 미워함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 신을 겸한 뒤에야 폐사(蔽私)에 빠질 일이 없고, 지혜의 온유하고 강함과 밝고 오점을 감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신(信)이 있는 뒤에야 또한 편일(偏一)하여 잃는 일이 없다. 오상(五常)에 신(信)이 있는 것은 오행(五行)에 토(土)⁸⁰⁾가 있는 것과 같으니 이미 홀로 이루는 공은 없지만 일에 따라 토(土)에 부쳐 이름을 이롭게 한다.⁸¹⁾

「일용오상」은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되는 오상’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오상을 절실하게 일상의 행실에 생각해 쓰도록 하라는 가르침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신(持身), 설시(設施), 교인(交人), 어중(禦衆)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신은 몸가짐을 가리키는데 주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지칭하는 것이며, 설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가리키며, 교인은 남을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감정과 그들의 시비에 대한 태도를 검토한 것이고, 어중은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강유(剛柔)와 그들의 잘못을 포용하는 정도에 관한 논술이다. 따라서 안창후는 일상생활에서 네 가지 항목을 실천할 때는 각각 네 가지의 폐단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에 관한 올바른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방법은 바로 오상에 속하는 인, 의, 예, 지, 신 등이다. 예를 들면, 안창후는 지신에 대해 네 가지의 어긋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중하게 여기기만 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위사람을 섬기는 데에 어긋나고, 스스로 가벼이 여기기만 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분부하는 데에 어긋나고, 말만

78) 순일(純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로만 되어 있음.

79) 장구(長久): 길고 오래.

80) 토(土): 오행(五行)의 하나.

81) 持身恐有四違，自重而不輕，違於事長，自輕而不重，違於令下，能言而不默，違於包容，能默而不言，違於接應。君子節之以禮，期於必無違也。設施恐有四傷，可與而不與，傷於吝也，不可與而與之，傷於惠也，可取而不取，傷於廉也，不可取而取之，傷於貪也。君子裁之以義，期於必無傷也。交人恐有四溺，愛其人而不知其惡，溺於愛也，惡其人而不知其善，溺於惡也，知其是而非不知其非，溺於是也，知其非而不知其是，溺於非也。君子明之以仁，期於必無溺也。禦衆恐有四失，好柔道而無剛斷，則失於懶弱，好剛斷而無柔道，則失於暴猛，好明辨而無藏污，則失於察察，好藏污而無明辨，則失於沒沒。君子度之以智，期於必無失也。大抵事長也令下也包容也接應也者，無非有是禮而節之，苟無此信，則禮不可以純一也，去其吝而實惠，塞其貪而合廉者，莫非有是義而裁之，亦無此信，則義不可以長久也，仁之於愛惡也是非也。兼此信而後得，無蔽私之溺，智之於柔剛也明藏也，有此信而後，亦無偏一之失也。五常之有信，猶五行之有土，既無獨成之功，而隨事寄土，無不利成者歟。『한설당유교』 74~75면.

잘하고 침묵하지 않으면 감싸주는 데에 어긋나고, 침묵하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접대하는 데에 어긋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예로 규정했다. 즉, 군자는 지신에서 예로써 조절하고 대응하면 네 가지의 어긋남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창후는 설시, 교인, 어중에서도 각각 의, 인, 지를 통하여 어긋남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안창후는 예, 의, 인, 지만 사용하고 신을 같이 겸유하지 않으면 예는 순수하게 되지 못하고, 의는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며, 인과 지는 공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신의 중요성을 오행 중의 토로 비유하는 것을 통해 신은 홀로 되는 공은 없지만 없으면 오상 중 인의예지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가 윗사람 섬기는 것과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 혹은 남을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태도 등에 관한 인간관계에서 존재하는 여러 양상을 제시해 주면서 오상이 일상에서 행실 혹은 대인관계를 파악할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특히 안창후가 오상 중 신의 참여를 강조한 것을 보면 오상은 하나의 전체로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안창후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을 처리할 때, 혹은 남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응하는 무기인 오상을 제시해 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다시 이 사회에서 창출하려는 의도가 깊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안창후는 집에서 처할 때 지켜야 할 여러 예의에 대한 가르침도 보여주고 있다. 「일용오상」이 자신을 출발하여 대인을 대하는 태도를 오상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거가잡의(居家雜儀)」는 사회에 존재하는 관계들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중요성을 서술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언급된 관계는 부부, 형제, 벗, 이웃, 노비와 주인, 과거 응시자와 감독관 등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모두 다 안창후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친근하게 도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거가잡의」⁸²⁾의 내용을 관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부부는 다른 성의 합이고 살아서는 한 방에 살고 죽어서는 한 구덩이로 들어가니 부부의 정이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서로에게 손님처럼 존경하고 골육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경계하기를 예로써 하고 삼가 도리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밖에서 이끌고 안에서 도와 제체(齊體)⁸³⁾의 의에서 어

82) 『한설당유고』 75~79면.

83) 제체(齊體): 일체(一體), 즉 부부(夫婦)를 지칭한다.

곳남이 없고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응하여 강유(剛柔)의 도를 잃지 않는다면 가법이 이루어질 것이니 자손들이 이 가법을 본받으면 대대가 편안하고 화락할 것이다.⁸⁴⁾

맨 처음으로 배치된 것은 부부에 관한 내용인데 안창후는 부부라는 관계를, 살아서는 한 방에 살고 죽어서는 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런 중요한 부부의 정을 키우기 위해 서로 예로써 존경해야 하며, 체체의 의와 강유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이래야 가법이 이루어지고 자손들에게 좋은 시범이 되어 대대가 편안하며 화락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형제는 같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몸만 둘로 나누어진 자이다. 형의 살은 곧 아우의 살이고, 아우의 기혈은 곧 형의 기혈이니 같은 살과 같은 기혈을 가진 형제를 어찌 몸이 둘이라 하여 둘로 볼 수 있겠는가? 아우로서 형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 살을 스스로 천시하는 자이고 형으로서 아우를 우애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그 기혈을 끊는 자이니 형제로 된 자가 어찌 그 근본을 생각하여 하나가 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처에게 빠지거나 재물에 사욕을 부려 기혈과 살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순순히 타일러 바른 태도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급박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삼가 악을 미워하지 말아서 나의 성심을 다한 뒤에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이는 동기가 멀리하거나 달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동기간에 합하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서도 합할 수 있는 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고 깨달은 날이 올 것이고 비록 혹은 다 고칠 수 없더라도 크게 천진을 잃어 가풍을 어지럽히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⁸⁵⁾

두 번째는 안창후가 같은 형식으로 형제에 대해 가르친 내용이다. 먼저 형제를 같은 기혈(氣血)과 기부(肌膚)를 나눈 하나의 존재로 서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아우가 형을 존경하지 않은 경우와 형이 아우를 우애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 이때 자신의 기혈을 끊고 근본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세상에서 사적 욕망 등으로 인해 자신의 형제와 멀리하게 되거나 싸우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급하게 말해주는 것보다는 성의로

84) 夫婦異姓之合也，而生居一室，死歸同穴，夫婦之誼，豈不重歟。必須相敬如賓而恩如骨肉，相警以禮而慎勿悖理。外率內相無違於齊體之義，先唱後和勿失於剛柔之道，則以成家法，子孫則之，永世安和矣。

85) 兄弟同生一父母，而身纔分二者也。兄之肌膚，即弟之肌膚，弟之氣血，即兄之氣血也。同肌膚同氣血之兄弟，豈可以身二而視二哉？弟不敬兄者，自賤其肌膚者也。兄不友弟者，自絕其氣血者也。為兄弟者，可不思其本而為一乎？世或有溺於妻，私於財，昧其同氣膚之意，則諄諄然開喻，以期於歸正。不可以急迫而傷其情也，慎勿疾惡而盡吾之誠心，然後時時以曉明言，此同氣之不可遠異也，而使知其於同氣不合，則無處可合之道。則必有誨悟之日，雖或有不能盡改，亦不至於大失天真而亂家風矣。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깨우치고 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야 형제를 회개하게 하고 가풍을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벗이란 그의 마음을 사귀는 것이지 그의 몸을 사귀는 것이 아니다. 뜻이 같아 서로 따르고 같이 동반하여 보탬이 되니, 선행이 있다면 그의 선을 칭찬하면서 선을 더하게 권하며, 과실이 있다면 그의 잘못을 얘기해 주어 반드시 그 과실을 고친다. 나이로써 하지 않고 지위로써 하지 않아 살아 있는 동안 서로 떨어지려 하지 않고, 가까움으로써 하지 않고 멀으로써 하지 않아 죽어도 서로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벗에게 상복을 입혀주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른바 벗이란 지위만 따지고 선악을 논하지 않으며, 나이만 따지고 마음과 뜻을 택하지 않는다. 모두 너나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친하다고 하지, 사랑과 존경으로써 서로 믿을 줄 모른다. 얼굴은 함께 벗이라 하지만 마음은 초월(楚越)⁸⁶⁾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오늘은 좋아하지만, 내일은 악의를 품는 자가 많으니 어찌 이를 벗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⁸⁷⁾

안창후는 벗에 대해 그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는 벗이라는 것은 그 벗의 신분을 벗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벗으로 삼은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안창후에게 벗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방의 선행을 칭찬하고 과실을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고 상대방의 나이와 처한 위치 등을 고려해 사귀는 존재는 아니다. 이렇듯 그는 앞부분에서는 진정한 우정의 모습과 소중함을 보여주고 그 뒤에서는 당대 사람들이 나이와 신분을 따지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런 가식적이고 쉽게 변하는 감정의 모습을 어찌 우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한다.

이웃의 도는 함께 받을 갈며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고, 독서할 때 서로 강문(講問)하고 잔치할 때 서로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것이다. 아침에 쫓고 저녁에도 따르니 친척 관계 아니라도 친척이 되며, 나갈 때 만나고도 들어올 때도 만나서 미리 약속한 게 아니라도 약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이 생겼을 때 서로 구원해 주며, 질병이 생겼을 때 서로 위문하며 조사나 경사나 경영함에 있으면 서로 의지하여 서로 구원해 주지 않음이 없으니 이웃의 정이 과연 중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선행이

86) 초월(楚越): 춘추시대 초나라와 월나라의 관계로 유래된다. 보는 관점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도 전혀 다르고, 가까운 것이라도 멀리 보인다는 말이다.

87) 朋友者，友其心，而非友其身也。志同而相隨，相將而爲益。有善行，則稱其善而益勸其善，有過失，言其過而必改其過矣。不以年，不以位，而生不欲相離，不以近，不以遠，而死不可相忘。則朋友之服麻惡可已也。今之所謂朋友者，以位而不論善惡，以年而無擇心志，皆以爾吾爲相親，不知以愛敬爲相信，面爲與朋而心如楚越，今日爲好，明日懷惡者多，豈可謂之朋友也哉。

있거든 진심으로 기뻐하여 반드시 칭찬해 주고 비록 불선이 있더라도 마음에는 아니다 싶어도 입으로는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동네 풍기의 순후함이다.⁸⁸⁾

더불어 그는 이웃에 관한 도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웃은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같이 독서하고 잔치하는 사이로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 규정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웃과 서로 도와주고 위문하며 서로 의지하기도 하는 깊은 정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잘 대접하면 동네 풍기를 지극히 순후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노비와 주인의 의는 분수를 군신과 같이 하고, 은혜를 부자와 같이 하니, 능히 이 의를 알아 반드시 그 분수를 밝히고, 능히 이 의를 행하여 반드시 그 은혜를 두텁게 하면, 그로써 분명하게 된다. 엄숙하여 그 은혜가 두터워짐으로써 범하지 않고, 친애하여 배반하지 않아 낙세(樂歲)에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환난이 있으면 함께 그 우환을 근심하니, 끝내 그 몸을 버려 그 주인을 위한다. 이는 분수가 중하고 은혜가 깊어서 감히 배반하지 못하고, 차마 잊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만약 그 분수를 밝히지 않아 주인이 위익(威儀)을 잃으면 노비에게 제멋대로 하려는⁸⁹⁾ 뜻이 생기고, 그 은혜를 두텁게 하지 않아 주인이 사랑과 은혜를 야박하게 하면 노비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 끝내 사사로이 자기만 돌아보고 주인을 위하지 않음에 이르게 되니, 이는 분수와 은혜가 없어져서 감히 배반하고 차마 잊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노비된 자는 대부분 지극히 어리석고 무식하니, 어찌 분의의 중함과 은의의 깊음을 알겠는가. 다만 분(分)에 구속하고 은(恩)에 배부르게 해서, 범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고, 배반하고자 해도 차마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노비와 주인 사이의 분의와 은의를 영원히 보전할 수 있으니, 때에 따라 조종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오직 그 일에 임하여 재량하고 헤아리며 의에 처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⁹⁰⁾

위의 내용을 보면 주로 주인이 노비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와 노비가 문제가 있을 때 주인이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에 관한 가르침이다. 특히 주인의 은(恩)과 노비의 분(分)은 양자 사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안창후는 주인으로서 엄

88) 居隣之道，同疇而耕，共井而汲，讀書焉相講，遊宴焉相攜。朝從暮隨，非親而親，出逢入見，無契而契。故患難而相救，疾病而相問。有吊焉，有慶焉，有經營也，莫不相依而相救。居隣之誼，果不重歟？人有善行，誠心悅喜，必為稱道，雖有不善，心惟非之，口不彰說者，此洞風之淳厚也。

89) 제멋대로 하려는: 원문의 '횡일(橫越)'을 이렇게 풀이하였다.

90) 奴主之義，分如君臣，恩如父子，能知此義，而必明其分，能用此義，而必厚其恩，則以其分明也。故嚴肅而不犯以其恩厚也。故親愛而不背，在樂歲而同享其樂，在患難而同憂其患，終至於舍其身為其主，此莫非分重恩深，而不敢背不忍忘者也。苟或不明其分，而主失威儀，則奴有橫越之志，不厚其恩，而主薄愛惠，則奴有怨咎之心，終至於私顧其己不為其主，此不過分蔑恩亡，敢於背忍於忘者也。然則為人之奴者多至愚而無識，渠何知分義之重，恩義之深也。但使拘之於分，飽之於恩，欲犯之而不得，欲背之而不忍，則永保奴主間分與恩之義也，若其隨時操縱，惟在臨其事裁度處宜之如何耳。

속하면서도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야 노비가 주인에게 친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주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주인이 사랑과 은혜를 적게 베풀면 노비가 원망의 마음이 생김으로써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하여 주인의 은혜를 잇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안창후는 주인의 행동 기준에 따라 주인과 노비 사이에 나타나는 각 문제를 하나씩 서술하고 주인으로서 노비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분(分)에 구속하고 은(恩)에 배부르게 해서, 범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고, 배반하고자 해도 차마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노비와 주인 사이의 분의와 은의를 영원히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는 문장으로써 인재를 고시하고 선발하는 것이다. 시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로써 그 뜻을 시험하는 것이요,⁹¹⁾ 부(賦)는 그 말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부(賦)로써 그 말을 시험하는 것이다. 뜻을 제하여 그 마땅함을 살피고, 의문을 가설하여 그 풀이를 관찰하니, 폐단을 가설하고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책문에서 제로 삼는 것이고, 사례하기도 경하하기도 하는 것은 전표에서 규범으로 삼는 바이다. 무릇 이 과거를 설치하는 법과 조목이 모두 그 문의(文意)를 살피고 재덕을 살펴 선발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그 옳은 것을 보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진술한 것을 살펴 그 말을 관찰해야 하며, 의는 옳음을 얻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풀려야 하는데, 조목조목의 대책과 하사의 상표는 모두 문장의 꾸밈⁹²⁾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정직함을 살펴 알아야 하니, 그런 뒤에 들어서 천거하면 선비는 억울한 원통함이 없을 것이요, 조정에는 인재가 풍성할 것이다. 근세는 사사로운 뜻이 횡행⁹³⁾하여 선발이 공정하지 않은지라, 그 상을 탐구하지 않고, 모든 글에 기교를 부린다.⁹⁴⁾ 혹 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사표 만들기를 도모하여 이것으로 습속을 이루어 암계(暗計)를 능사로 삼아 염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기를 치는 것을 지혜로이 여겨 공의(公義)를 끊으니, 이는 진실로 선비가 마땅히 과거에 응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거를 보는 사람으로서 재주가 있는 사람은 헛되이 쌓아 놓아서 안 되고, 뜻이 있는 자는 스스로 내버려서는 안 되는 지라, 혹은 어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자들이 저마다 그 마음은 다르지만 그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니, 마땅히 나의 재주의 미진함을 염려하여, 더욱 더 자기의 공부를 더하여 평가하는 사람의 공평한 안목(眼目)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펼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막힌 운수를 만난 것이니, 그 운수에 무슨 원망을 하겠는가. 선비다운 마음을 지닌 선비는 습속의 마음에 물들지 말아야 하니, 생각건대

91) 시로써 ~ 것이요: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시는 뜻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詩言志).”라는 구절이 나온다.

92) 조전(雕篆): 조충전각(雕蟲篆刻)의 준말로 벌레 모양이나 전서(篆書)를 조각하듯이,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문장을 꾸미는 조그마한 기교를 가리킨다.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사부(詞賦)와 같은 작은 기예를 양웅(揚雄)은 벌레를 조각하고 전각(篆刻)을 하는 것에 비겼습니다.[臣按詞賦小技揚雄, 比之雕蟲篆刻]”라는 구절이 나온다.

93) 횡류(橫流): 제 길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넘쳐흐르는 것.

94) 문교(文巧): 화려하게 꾸미고 기교를 부리는 행위.

나의 도를 다해 하늘의 밝은 명령을 기다릴 뿐이다.⁹⁵⁾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은 안창후가 과거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주로 과거가 존재하는 형식과 의미를 서술하고 나서 당대 과거의 폐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안창후는 과거 응시자에게 이런 사사로운 현실에서 비록 선발이 공정하지 않고 나가는 안 좋은 환경이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더욱 자기의 공부를 더하여 공평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은 막힌 운수라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고 했다. 이 부분은 과거 응시자와 감독관 그리고 하늘과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안창후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특히 과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나 선비의 마음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준비하고 천명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용오상」과 「거가잡의」를 보면 안창후는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윤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통해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당대의 현황과 결합해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생활윤리는 여전히 유학적 윤리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인다. 여기서의 예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예는 사적이고 독립된 개체가 명백히 알아야 비로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창후는 이들 문에서 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와 사물의 본질을 설명해 주면서 아울러 이런 관계 혹은 처사에 관한 해결책도 가르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의 인격 수양을 높임을 통해 마을 혹은 사회에 마땅하지 않은 풍기를 제거하고 양호한 풍기를 확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95) 科擧者以文章考試人才，而擧拔者也。詩也者，所以言其志，故詩以試其志，賦也者所以敷陳其辭，故賦以試其辭。題義而察其宜，設疑而觀其解，設弊救弊策問之所以爲題也，或謝或賀箋表之所以爲規也。凡此設科之法目，皆莫非察其文意，擇其才德者而擧拔，故爲試監之人，見其詠而想其志，觀其敷而察其辭，義之得宜，疑之釋解，逐條之對策，賀謝之上表，皆不貴乎雕篆，而審知其正直，然後揚而薦之，士無枉屈之冤，朝有人才之盛矣。近世私意橫流，選拔非公，不究其實，而全事文巧，或未成篇，而謀爲私標，以茲成俗，暗計爲能而廉恥都喪，行詐爲智而公義頓絕，此誠爲士者之不冝赴氣。然而以科擧人，有才者不可空蘊，有志者不可自拋，或爲悅親焉，或爲揚名焉者，各殊其心，而欲遂其心，則一也，惟冝以吾才之未盡爲慮，而益加已工以待考者之公眼，則必有可伸之日矣夫。然而終不得意，則是遭運之否塞也，其於運何怨之有哉愼乎。士之有士之心者，勿染於習俗之心，惟盡吾之道而待天之明命也歟。

2) 실현 가능한 예에 대한 강조

앞서 살펴본 두 글이 개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인성 함양에 관한 도리를 밝힌 것이라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예설」은 사람이 일생에 걸쳐 행해야 하는 모든 예적 의식의 개념과 체계적인 차림의 순서에 관한 도리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식들은 거의 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생 혹은 사회의 大禮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이다. 안창후가 「예설」에서 정리한 중요 의식은 11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4> 「예설」에 서술된 각 종 의례

번호	제목	주제	비고
1	관례(冠禮)	고대 남자의 성인식을	계례는 관례의 의절과 같다고 했다.
2	계(笄)	고대 여자의 성년의례	
3	혼례(婚禮)	고대 남녀의 혼례의 절차	-
4	전안(奠雁)	혼례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는 예	-
5	서부교배(壻婦交拜)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는 의식	-
6	견구고례(見舅姑禮)	신부가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는 의식	-
7	혼서식(昏書式)	혼인 때 읽는 혼서의 문	-
8	상례(喪禮)	상중(喪中)에 지키는 모든 예절	-
9	제례(祭禮)	제사에 관한 모든 예의	-
10	시제(時祭)	춘하추동의 길일이나 절일에 받드는 제사	-
11	축문식(祝文式)	제사(祭祀) 때 읽는 제문	제문의 형식을 수십 개를 보여줌

위를 보면 안창후가 지은 「예설」 안에는 남녀 간의 혼례, 조상을 제사하는 일, 상례에 관한 차림, 그리고 혼서와 축문의 형식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번은 관례, 3~7번은 혼례, 8은 상례, 9~11번은 제례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안창후가 유학자로 예학을 중시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편폭으로 봤을 때는 제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가 제례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축문식(祝文式)에 관한 내용이 전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안창후가 관혼상제를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히 각 상황과 제사의 대상에 따라 축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장 강조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안창후가 사람들에게 조상을 잊지 말고 늘 제례를 실행함으로써 선인을 회고하라는 가르침을 준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한편, 그는 성현들이 지은 의절에 관한 가르침을 해설하고 제창하면서도 현실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나름의 의견까지 제시해주었다. 예를 들면 「관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창후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관례는 성인의 도를 바라는 것이니 그 예절이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주자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씨(丘氏)의 의절이 매우 간단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⁹⁶⁾

위를 보면 안창후가 「관례」에서 관례는 성인의 도를 바라는 것이라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자가 보여준 관례의 의절을 설명하고 나아가 사람들이 마땅히 주자가 제시해준 구체적인 의절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입각하여 구씨(丘氏)가 만든 관례에 관한 의절이 매우 간단하고 편하게 행할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게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안창후가 관례에 관한 절차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널리 생활화하도록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안창후는 전통적인 제례에 관한 습속이 다시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가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다음에 있는 「시제(時祭)」의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한 안창후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시골 간에 드물게 실행하므로 후대 사람 중에 제례를 아는 자가 장차 없어질 것 같다. 내가 한탄

96) 冠禮所以責成人之道也，其禮豈不重歟？當依朱子所正行之。而今按丘氏儀節甚爲簡便易行，故附於下。『한설당유고』 121면.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이를 지음을 통해 후인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다. 주자가 말씀을 하기를 “모든 제사는 주로 사랑과 존경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빈곤하면 집안의 부족이 있는지를 헤아려 근력을 측량하여 실행하고 미칠 수 있는 재부를 가진 자는 마땅히 스스로 이 의절과 같아야 된다.⁹⁷⁾

시제는 바로 사계절에 관한 제사를 가리킨다. 이 문에서 안창후는 주자가 제창한 예에 입각하여 대략적으로 시제의 중요성과 차림에 대해 해설해 주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그는 시제를 차리는 것은 가정의 여유에 따라 일 년에 두 번 혹은 한 번도 되며 수년간에 한번만 차려도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하지만 궁벽한 향촌에서 시제를 차리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안창후는 후생들이 시제에 관한 예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상황을 보고 탄식하면서 시제에 관한 글을 지어 후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고 제사에 대한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모든 제사는 주로 사랑과 존경함의 성의를 다하라는 것일 뿐이다. 빈곤하면 자신의 상황을 보고 차리면 되며, 금전적으로 괜찮으면 또한 마땅히 의절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안창후는 성인들이 추진했던 의식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을 꼼꼼히 제시해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백성의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절충해 거기에 맞게 예를 차리면 된다고 말한다.

안창후는 갈수록 사회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자가 많아지고 풍기가 어지러우면서 예를 중요시하지 않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어 문을 이용하여 일상적 생활윤리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관혼상제 같은 전통적인 예의에 관한 가르침을 표출하려고 했다. 그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백성의 각도에서 생각하고 실생활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장면에서 출발하여 예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다시 부흥하기 위해 때로는 융통성이 있게 경제적 처지와 편리성을 고려해 주고 의절에 관한 표준을 낮춰주기도 했다. 그래야 민중들이 예를 차리는 일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메시지의 전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용사와 전고를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이고 꾸밈이 없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문법은 모두 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 군자다운 모습을 백성의 머릿속에 심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예학 혹은 유학적 이념을 교화하는 것을 도모했던 것이다.

97) 鄉曲間鮮行，故後生知其祭禮者若將無焉。吾以慨恨之心著此以示吾後。朱子曰，凡祭主於盡愛敬之誠而已。貧則稱家之有無疾，則量筋力而行之，財力可及者自當如儀。『한설당유고』 129면.

3. 한설이십오의 특성

안창후의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설이십오’라 할 수 있다. ‘한설이십오’는 25개 주제를 선택하여 소재목 아래 문과 시를 지은 후에 국문으로 된 24편의 시조와 1편의 가사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한설이십오’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속한 문·시·가사를 하나로 묶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설이십오’의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한설이십오’의 주제⁹⁸⁾

구분	‘한설이십오’의 제목	인용된 경전	핵심 내용
1	人道	『周易』, 『孟子』	사람의 도리
2	人心道心	『書經』	인심과 도심
3	心意志氣	『孟子』	심 의와 지 기
4	食色		식욕과 색욕
5	天性賢愚同	『論語』	학문에 대한 권면
6	謹身以約 接人以厚	『孟子』, 『小學』	근신과 접인의 태도
7	愛惡以公	『禮記』	사랑과 미움의 공변
8	士有恒心 民易失恒	『論語』, 『詩經』, 『孟子』	항심의 강조
9	知事		일 처리하는 방법
10	知義理	『孟子』	의리 알기
11	喜聞過無隱無識	『論語』	그른 일 바로잡기
12	養子方知我不孝	『孟子』, 『大學』	효도 지키기
13	子以父母心爲心 則率性而爲孝	『論語』	효도의 실천

98) 이 표는 송재연, 「안창후(安昌後) 시조의 도학적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국문학연구』 31권, 국문학회, 2015, 120~121면을 참조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임.

14	可繼述則繼述 可改則改之	『中庸』, 『論語』, 『書經』	선조의 유업 계승
15	思先則睦族	『論語』	친족과 화목하기
16	戒貪女樂	程頤, 『論語』	여악에 대한 교훈
17	樂樂而不淫	『論語』	음악 즐기는 법
18	心樂爲本 樂樂爲末	『孟子』	마음으로써 즐기기
19	戒好勝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기
20	是非不可自恃輕定		시비에 대해 쉽게 판정하는 것을 경계하기
21	戒驕	『孟子』, 『통감절요(通鑑節要)』	교만함을 경계하기
22	有知不教不知同	『論語』, 『大學章句』	가르침에 대한 권면
23	自歎出處難	『論語』	출처에 대한 생각
24	自責徒言無實	『論語』, 『史記』	말하는 것을 삼가기
25	名分說	『孟子』, 『史記』, 『周易』	명분을 지켜야 함

위의 표를 보면 ‘한설이십오’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창후는 대체로 유학 사상을 담은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가르침과 결합시켜 창작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 내용을 보면 천성,心和氣, 개인의 사욕과 수양, 직분과 명분, 배움과 가르침, 효도와 조상에 대한 회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영월음풍 같은 자연을 묘사하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모와 조상에 관한 가르침이 몇 편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조상에 대한 회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가 창작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람다운 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수렴된다. 이런 점에서 ‘한설이십오’ 작품 모두 가장 앞에 배치된 「인도」의 주제 의식에 포괄할 수 있다. 인격 수양이든 배움이든 처사의 태도든 효도를 지키는 것이든 경계해야 할 것이든 모두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 인간의 심성과 처사에 관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과 부모에 대한 효

도와 가문의 화목을 나타내는 것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의 심성과 처사에 관한 가르침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안창후의 ‘한설이십오’는 한 마디로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알려 주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도」라는 작품이 맨 처음에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만물 중 가장 신령하여 하늘을 대신하여 천도를 행하는 존재이다. 천지의 바른 기를 품부 받고 천지의 광대함을 체득했는지라, 그러므로 원형이정(元亨利貞)⁹⁹이란 것은 하늘인데, 사람이 얻어서 인의예지를 쓰고, 건강불식(健強不息)¹⁰⁰이란 것은 하늘인데, 사람이 얻어서 자자불태(孜孜不怠)를 행해야 한다. 이에 기강을 세워 진작하며 윤리가 있어서 어지럽지 않고, 각각이 그 직분을 받아들이면 무리에 처해도 어지럽지 않으니 이것이 삼재(三才)¹⁰¹에 속해 있으면서도 인도가 중요한 까닭이다. 만약 아버지가 되어 자애롭지 않으며, 자식이 되어 효도하지 않으며, 윗사람이 거만하고 아랫사람이 불공하며, 이익을 탐내고 명분을 범하면 겉모습은 인간과 비슷하더라도 말만 할 줄 아는 금수이니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당 소년들에게도 이렇까봐 두려워하여 능히 생각하고 능히 공경하여¹⁰² 반드시 인도에 대해 다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³

人世人多豈盡人

인간 세상에 사람 많지만 어찌 다 사람이겠는가?

99) 원형이정(元亨利貞):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건(乾)의 네 가지 원리. 곧 사물(事物)의 근본 원리라는 말인데, 원(元)은 만물의 시(始)로 춘(春)에 속하고 인(仁)이며, 형(亨)은 만물의 장(長)으로 하(夏)에 속하고 예(禮)이며, 이(利)는 만물의 수(遂)로 추(秋)에 속하고 의(義)이며, 정(貞)은 만물의 성(成)으로 동(冬)에 속하고 지(智)가 된다.

100) 건강불식(健強不息): 천행건자강불식(天行健自強不息)의 줄임말. 『주역(周易)』, 「건괘 상(乾卦象)」에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보고서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라고 하였다.

101) 삼재(三才): 천(天)·지(地)·인(人)을 가리키는 말로,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에 “하늘의 도(道)를 세움은 음(陰)과 양(陽)이요, 땅의 도를 세움은 유(柔)와 강(剛)이요, 사람의 도를 세움은 인(仁)과 의(義)이니,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하였기 때문에 역(易)이 여섯 번 그어서 괘(卦)가 이루어진다.[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라고 하였다.

102) 능히 ~ 공경하여: 원문에는 ‘克念克敬’이다. 송(宋)나라 범준(范浚)의 「심잠(心箴)」에 “군자가 정성을 보존하여 능히 생각하고 공경하면, 천군이 태연해져서 백체가 그 명령을 따르리라.[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라고 하였다.

103) 人者萬物中最靈, 代天而行天道者也. 稟天地之正氣, 體天地之廣大. 故元亨利貞者, 天也, 而人得以用仁義禮智, 健強不息者, 天也, 而人得以行孜孜不怠. 於是乎立綱振紀, 有倫而不紊, 各受其職, 群處而不亂. 則此所以參於三才而人道至重者也. 苟或父而不慈, 子而不孝, 上慢而下不恭, 貪利而犯名分, 則貌雖類人, 能言之禽獸, 何可謂之人也? 吾黨之少年恐懼乎此, 克念克敬, 必盡人道也. 『한설당유고』 43면.

人能人道乃爲人
 求諸己也備人道
 不必勞勞遠訪人

사람이 능히 인도를 잘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 인도를 갖추는 것이니,
 수고롭게 멀리 남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¹⁰⁴⁾

시이 시이라 혼들 시마다 시이라
 시이 시이라사 시이 시이니라
 진실노 시노릇 헉라 헉면 反求諸己 헉여스라¹⁰⁵⁾

먼저 문에서는 사람과 천지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여러 경전의 개념을 빌려 인도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안창후는 『주역(周易)』에서 천(天)·지(地)·인(人)을 가리킨 三才 중 인도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아버지로서 자애롭지 않고 자식으로서 효도하지 않으며, 윗사람으로서 거만하고 아랫사람이 불공하는 세태를 보고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능히 생각하고 능히 공경하도록 인도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듯 안창후는 문에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정리하면서 나아가 인도의 개념을 던져준 후에 세태를 비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인도를 다하도록 하는 방법인 克念克敬이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시조를 보면 안창후는 초·중장에서 세상에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다워야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매섭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진정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反求諸己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맹자(孟子)』에 나온 말인데 행하여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는 가르침이다.¹⁰⁶⁾ 안창후는 이를 인용하여 주로 인도에 응용하여 사람답게 하려면 자신의 심성과 행위를 늘 반성하라는 대책으로 제공했다. 이 때문에 안창후가 이 시조에서 가장 역설하고자 한 것은 바로 反求諸己라 할 수 있으며 결국 개인의 심성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권면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한시 부분을 보면 기구와 승구는 시조의 초·중장과 동일하게 사람의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구와 결구를 보면 자신을 돌아보아 인도를 갖추어야지 수고롭게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조와 한시의 내용적 측면을 보면 별로

104) 『한설당유고』 43면.

105) 『한설당유고』 141면.

106) 『맹자(孟子)』, 「이루 상(離婁上)」에 “행하여 얻지 못한 것이 있거든 모두 반성하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지니, 제 몸이 올바르게 되고 천하 사람이 귀의할 것이다.[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 而天下歸之.]”라고 하였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게 나오거나 서로 없는 어휘가 나타나는 등 사소한 차이만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문은 유학적 개념의 원리에 대한 설명과 현재의 세태 및 그에 대응하는 비판과 대책 등으로 자세히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시조는 주로 초·중장에서는 먼저 세태를 비판하고 종장에서는 그가 원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초·중장에서 먼저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이념 혹은 모습을 서술한 후에 종장에서 현세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들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애오이공(愛惡以公)」을 들 수 있다.

사랑에 빠진 자는 밝지 못하고 미워함에 치우친 자는 감정이 지나치니 이것은 사람의 큰 병통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악이 없는 것도 아니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나의 사랑은 비록 취하는 바가 있으나 반드시 그 사람의 악을 알아야 하고 나의 미움은 허물할 바 있으나 반드시 그 사람의 선을 알아야 한다. 취하는 바는 사랑해서 그의 악을 반드시 분별해 주어야 되고 허물할 바는 미워해서 그의 선을 반드시 허락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옳다고 그르다에 대해 시비가 명백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과 미움에 있어서 애오(愛惡)가 공정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미 밝으니 그른 자가 보이면 억울함이 없고 내가 이미 공정하니 악한 자가 보이면 믿지는 않다. 시비와 애오(愛惡)에서 사람이 어찌 실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후세 사람들 애오(愛惡)도 역시 이렇지 않음이 없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찬양하고 밋다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방한다. 심지어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힘쓰기만 하고 자신과 다른 것을 배척하기도 하니 이는 세상에 당론이 있어 정할 수 있는 때가 없는 것이니 탄식함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¹⁰⁷⁾

愛之知惡愛為公	사랑하되 악을 알면 사랑이 공정하고
惡又記賢惡亦公	미워하되 현명함을 기억한다면 미움도 공정하리.
今世人多阿所好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첨하니
譽惟私也毀何公	칭찬함이 사사로운데 비난함이 어찌 공정하겠는가? ¹⁰⁸⁾

愛而知其惡 ㅎ고 惡而知其善 ㅎ면

107) 溺愛者不明，偏惡者過情，此人之大病也。我愛此人，此人未必無惡，我惡此人，此人未必無善。我之愛也，雖有所取，而必知其人之惡。我之惡也，雖有所咎，而必知其人之善。所取焉，愛之而必辨其惡。所咎焉，惡之而必許其善。則是之非之，是非明也。愛之惡之，愛惡公也。我既明矣，見非者無冤，我既公矣，見惡者不怨。是非愛惡之間，人何敢逃其情實也。後人之愛惡不如是，如其愛也，譽若無一非焉，如其惡也，毀若無一是焉。至於專務阿好，而斥異己者，此世俗之有黨論，而無可定之時也，可勝歎哉。『한설당유고』 49면.

108) 『한설당유고』 49면.

中心이 至公 好야 是非分明 好오리라
엇지타 末世論은 阿於所好 好는게야¹⁰⁹⁾

「애오이공(愛惡以公)」은 제목처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미움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안창후는 시조의 초장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의 악함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그의 선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이런 사변적인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공정에 이르러 시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안창후는 사람들이 타인을 대할 때 필요한 지혜로운 태도를 제시해 주고 이런 공변된 愛惡는 최종적으로 시비를 분명하게 해 주는 공효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장을 보면 일정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종장에서 당시의 사회적 풍기에 입각하여 사람들의 언론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아첨하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비판 속에 사회에 대한 안창후의 깊은 탄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애오이공」의 한시를 보면 기구와 승구에서 거의 시조의 초장과 일치하게 공정한 사랑과 미움의 표준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전구와 결구에서는 모두 다 당시 사람들이 아첨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작품에서 한시와 시조의 가장 큰 차이는 시조의 중장처럼 공변된 사랑과 미움이 시비를 분명하게 해 준다는 효용에 관한 설명이 한시에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을 보면 여전히 가장 상세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과 미움의 병통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사랑과 미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 이어서 공정한 사랑과 미움이 시비를 밝게 해 준다는 공효를 알려주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사람들이 사랑과 미움에 대해 잘못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비판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2)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문의 화목 강조

‘한설이십오’에는 효도에 관한 가르침과 관계된 것이 여러 편 있다. 예를 들면 「양자방지아불효(養子方知我不孝)」, 「자이부모심위심, 칙술성이위효(子以父母心爲心, 則率性而爲孝)」, 「가계술칙계술, 가개칙개지(可繼述則繼述, 可改則改之)」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 중 「자이부모심위심, 칙술성이위효」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109) 『한설당유고』 142면.

하늘이 이 백성을 낳으심에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 아버지로서 마땅히 자애하고 자식으로 마땅히 효도하는 것은 천부(天賦)의 성을 똑같이 얻어 현자나 우자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로 순임금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다름이 없는데, 어버이 섬김의 정성은 모두 순임금의 어버이 섬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아! 사람이 자식을 기를 때에는 모두 그 성을 모두 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순임금과 같고, 어버이 섬김은 그 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효는 순임금과 같지 않다.

대저 순임금은 천성을 따라 간격이 없는 자이니, 자식이 되나 부모가 되어서도 그 도리를 모두 다하였기 때문에 순임금이 된 것이다. 범인은 그 성을 얻었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이다.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어 혹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식된 자가 진실로 부모께서 나를 길러주는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부모를 섬긴다면 이는 성을 따름이 순과 같아지는 것이니, 효가 어찌 순과 다름이 있겠는가? 선유(先儒)께서 말씀하시길,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¹¹⁰⁾라고 하였으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 마음의 옳게 여김을 따라서 효를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¹¹¹⁾

劬勞何日不深誠	수고하심에 정성이 깊지 않은 날이 없었고
保護無時減至情	보호하심에 참된 정이 줄어든 때가 없었다.
知是吾人能率性	우리들이 능히 성을 따를 줄 안다면
事親何不此心行	어버이 섬김에 어찌 이 마음을 행하지 않겠는가? ¹¹²⁾

잇버도 잇분 줄 모르고 괴로와도 괴로운 줄 모르니
 養子 蠢 至誠은 愚夫愚婦 蠢가지다
 아마도 父母心 爲心者 | 아 率性之孝인가 ㅎ노라¹¹³⁾

110)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 『맹자집주(孟子集註)』에 “나중소(羅仲素)가 단지 천하에 선하지 않은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옹[陳瓘]이 그 말을 듣고 훌륭하게 여겨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천하의 부자(父子)들이 안정될 수 있다.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시해하는 일들은 항상 (부모나 임금의) 선하지 않은 부분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 [羅仲素語此云, 只爲天下無不是底父母, 了翁聞而善之曰, 唯如此而後, 天下之爲父子者定, 彼臣弑其君, 子弑其父母, 常始於見其有不是處耳.]”라는 내용이 나온다. 나중소는 북송(北宋)의 이학가(理學家)인 나종언(羅從彦, 1072~1135)이다.

111) 天生斯民, 有父有子, 父而當慈, 子而當孝者, 同得天賦之性, 而無賢愚之異者也. 人人愛子之心, 固不異於舜之愛子, 而事親之誠, 皆不及於舜之事親者, 何也? 噫! 人之養子也, 皆用其性, 故其愛也與舜同, 事親也, 不用其性, 故其孝也與舜不同也. 大抵舜則率天性, 而無間者也, 爲子爲父, 皆盡其道, 而所以爲舜者也. 凡人得其性, 而不率者也, 爲父爲子, 或存或無, 而所以爲凡人者也. 然則爲人子者, 誠以父母育我之心爲心, 而事父母, 是率性與舜同也, 孝何有不同於舜也. 先儒有言曰, “無不是底父母”, 父母之於子, 莫不盡其心, 而無不是也, 則子之於父母, 可不遵此心之是而爲孝乎? 『한설당유고』 56면.

112) 『한설당유고』 57면.

113) 『한설당유고』 144면.

「자이부모심위심, 즉솔성이위효(子以父母心爲心, 則率性而爲孝)」의 뜻을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성을 따라 효를 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바로 안창후가 시조에서 가르치려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초장을 보면 부모가 고단하고 괴로워도 고단함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무사(無私)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중장에서 이렇게 자식을 길러주는 지극한 정성은 천하에 모든 평범한 부모가 다 똑같다고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아야 성을 따른 효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여 핵심 주제를 정리해 보여준다.

그리고 한시를 보면 어휘의 표현이 다르게 보이지만 시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의 수고함과 보호함이 깊고 크다는 것을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전구와 결구에서는 천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섬기는 데에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문을 보면 안창후는 모든 아버지와 아들은 다 하늘이 부여해 준 성을 타고난 것이므로 성인과 같지 않은 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버지로서는 순임금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름이 없지만 아들로서는 순임금이 부모를 섬기는 데에 못 미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순임금은 성인으로서 본성을 따를 줄 알고 도를 능히 통하였으나 일반 사람들은 성을 따를 줄 모르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고 안창후는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마음처럼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하며, 본성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표출하였다.

한편 부모에 대한 효도와 더불어 안창후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은 가문의 화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보여주는 것이 「사선즉목족(思先則睦族)」이다.

같은 성은 백 대가 모두 친척이다.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소원(疏遠)하다 하겠지만 위로부터 본다면 부모가 동일하니 어찌 한 부모의 자손으로서 우락(憂樂)을 같이 하지 않고 서로 구제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에 돌아가신 부형께서 한 집안을 똑같이 다스리면서 지신(持身)의 도(道)를 서로 강(講)하고 행사(行事)의 마땅함(義)을 서로 의논하여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근심이 있으면 같이 근심하였으니, 거의 옛사람들의 정의에 가까웠다. 근간에는 재산이 균등하지 못하고 의식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지나쳐서 사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은 남을 책하는데 지나쳐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미 사육이 있으면 뜻이 근후(勤厚)함을 잃음이 있고 이미 원망함이 있으면 마음을 가지런함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 소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외모의 가지런함을 면하는 것이 아니니 하물며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는 일찍이 스스로 몸을 닦는 공부에 미진하다 끝내 한 집안의 사람들도 가지런하게 못하였으니 또다시 어찌 멀리 있는 같은 가문의 사람에게 요구하겠는

가? 그러나 각각 그 선조가 남긴 뜻을 따르면 우애하는 마음이 자연히 피어나고 각각 부형이 남긴 자취를 생각하면 친족의 정의가 몽클히 일어나니 내가 이것으로써 형제들과 자질(子侄)들에게 깊이 바라는 것이다.¹¹⁴⁾

我不身修家不齊	나는 몸을 닦지도 않고 집도 가지런히 못하였으니
此無觀感彼何齊	이는 보고 느낄 것이 없는 것인데 어찌 집안 사람들을 가지런하겠는가.
人人倘各思先祖	사람마다 각각 선조를 생각한다면
同氣相隨自睦齊	동기끼리 서로 함께 절로 화목하고 가지런할 수 있는 것이다. ¹¹⁵⁾

同姓은 百代之親이요 敦睦은 傳家之風이라
 이 敦睦 못 니으면 子孫있다 ㅎ올소나
 各思其親ㅎ면 절노 和同홀가 ㅎ노라¹¹⁶⁾

위의 시조를 보면 초장에서 같은 성은 백대가 친척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좋은 풍기라 말하고 있다. 이는 같은 성을 가진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이 화목하게 지냄을 못 이으면 자손이 있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봄으로써 화목함의 중요성을 反問을 통해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장에서 안창후는 각자 그 친함을 생각하면 절로 함께 화목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안창후는 사람들에게 같은 가문에 속한 친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은 바로 선조를 기억하며 서로 우애롭게 지내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한시 부분을 보면 기구와 승구에서는 안창후가 시조와 달리 개인으로서 자신의 몸을 닦은 일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에 두어야 집안이 가지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구에서는 사람마다 만약에 모두 다 자신의 선조를 생각한다는 가정을 한 후 결구에서는 이래야 형제나 친족들이 함께 화목하고 同心協力 할 수 있다는 공효를 보여주었다.

114) 同姓百代之親也，自今而觀之則雖云疎遠，自上而觀之則同一父母也，豈以一父母之子孫不同憂樂而不相救助之者乎。粵我先父兄，同齊一家而相講於持身之道，相議於行事宜，有樂焉同樂有憂焉同憂，庶乎古人敦睦之誼矣，近聞財產不均衣食不一，故或過於爲己而未免於私，或過於責人而未免於怨矣，既有私也而意有失於勤厚，既有怨也而心有違於一齊。今之所謂齊之者，不免於外貌之齊也，況我無似者，曾未盡自修之工，而迄未齊同室之人，更何望稍遠之一門乎。然而各追其先祖之遺意，則友于之心，自然而發，各思其父兄之遺跡，則親族之誼，油然而興，吾以此深有望於弟兄子侄也。『한설당유고』 59면.

115) 『한설당유고』 60면.

116) 『한설당유고』 144~145면.

그리고 문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선조를 생각하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내용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가문에 어지럽히고 서로 도와주지 않으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안창후는 옛사람들의 좋은 행실을 정의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는 데 비해 지금의 사람들이 사욕에 빠지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이 문을 쓴 목적은 안창후가 문중자제들에게 권면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안창후가 그의 ‘한설이십오’에서 爲人之道, 處事之道, 學問之道, 孝順之道 등 여러 면을 골라 그에 해당하는 군자다운 행실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 그가 실제로 향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공부하고 있는 선비들에게 유학적 이념을 가르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시·가의 형식을 동원하고 있다. 시조와 한시의 경우 가끔 다른 표현이 나오거나 서로 없는 어휘가 나타나지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문과 시조를 견주어 보면 문에서는 더욱 충실하게 안창후가 말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전고 혹은 당시 사회의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데 비해 시조에서는 더욱 簡潔美를 중시하고 핵심을 요약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안창후가 시조를 덧붙인 것은 지식이 낮은 수준에 처한 일반인들까지 가르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즉 한문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로 불러지는 시조를 통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 안창후의 문학을 한시, 산문, ‘한설이십오’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포착한 안창후 문학의 특성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안창후의 한시, 산문, ‘한설이십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화려한 수식보다는 꾸밈없이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는 한시, 산문, ‘한설이십오’에서 모두 다 일치하게 문학의 예술성보다는 기능을 더 중요시하여 재도론과 교화론의 관점에서 작품을 쓰고 있다. 그는 문학을 통해 자신이 제창하고 추송하려는 유학의 이념과 규범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지럽고 무너진 현실 세계를 정신적으로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그의 전반적인 문학 양상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擬古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안창후 문학의 문학사적 위상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역동적인 시기였다. 그리고 이런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향촌사족은 중앙정권과의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비로서 과거에 합격하는 문제 및 가장으로서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답을 찾아내려는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중앙권력이 지방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향권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종종 위기 앞에서 향촌사족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가문의 단결을 견고하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향민을 교화함을 통하여 향촌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¹¹⁷⁾ 18세기 후반 전라도 보성의 향촌사족이었던 안창후의 문학은 이런 배경 하에서 산출되었다.

비슷한 시대적 배경 하에 지역적으로도 같은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작가 중 안창후와 마찬가지로 한시와 국문시가의 영역을 함께 넘나든 인물로 황윤석(黃胤錫, 1729~1791년)과 남극엽(南極曄, 1736~1804년)을 들 수 있다. 황윤석은 목천현감으로 있을 때 「목주잡가(木州雜歌)」 28수를 창작하였으며 여러 시조 작품을 한시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남극엽 또한 「애경당십이월가(愛敬堂十二月歌)」라는 연시조를 창작하였으며 스스로 이 작품을 한역하였다. 이들은 조선후기 전라도 지역의 문인으로서 한시와 시조를 아우르는 작품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안창후와 유사한 행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창후의 경우는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설이십오’라는 독특한 양식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한설이십오’는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먼저 문으로 자세히 밝힌 다음 이를 한시와 시조로 다시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양식은 황윤석이나 남극엽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창후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촌사족이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은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이관빈의 「항남별곡」과 같은 가사 작품에는 산수 유람을 하는 과정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성리학적 이상향을 찾는 것은 결국 조선후기 분화된 사대부 계층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향촌사족의 내적 갈등과 고뇌가 만들어 준 행위

117) 국윤주, 「조선후기 향촌사족 시가의 자의식과 그 윤리적 성격—위문가첩을 중심으로」, 『한국시가 문화연구』 제 2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305~306면.

라 할 수 있다.¹¹⁸⁾ 이런 점에서 이관빈의 지향과 내면 의식은 안창후와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두 작가가 모두 성리학적 이념의 견인력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창후가 해결하고자 한 것은 마을공동체의 풍기를 개선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활발하게 문학창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창후의 문학은 이관빈이 추구한 문학과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창후의 문학에 투영된 향촌공동체 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흥지역에서 살았던 위백규(魏伯珪, 1727~1798년)와의 비교 검토가 요청된다. 위백규는 안창후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향촌사족인데 그는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창작된 「농가(農家)」는 노동의 분위기를 경쾌하고 밝은 것으로 묘사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향촌공동체를 互惠性과 同樂의 시점에서 운영하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¹¹⁹⁾ 그리고 이와 동시에 위백규는 실천적으로 경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하였다. 이와 달리 안창후의 향촌공동체 운영은 향촌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상 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의 문학은 여기에 일조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다. 도덕적 사상 개조라는 측면에서 창작된 안창후의 문학은 후대에 조항과 같은 작가에게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창후의 문학에는 윤리적 의식과 유학적 도덕이념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문의 가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안창후 가문에서 대표자로 꼽히는 은봉(隱峰) 안방준(安邦俊, 1573~1654년)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안방준은 비록 시조가 아닌 한시 작품이기는 하나 「오륵가(五倫歌)」를 창작하였다. 그는 무너진 세상의 질서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의 상실을 보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독행(篤行)’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오륵가」를 창작하였으며, 오륵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¹²⁰⁾ 또한, 안방준을 통해 가문의 위상이 높아진 이후 이런 문학 창작을 통한 교화의 모습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안후상에게서 나타나는데 대내적으로는 문중의 강학 활동에 열중하고, 대외적으로는 향촌의 교화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 문중의 자제들을

118) 조유영, 「조선후기 향촌사족의 이상향 지향과 그 의미」, 『우리말글』 제 71집, 우리말글학회, 2016, 235~237면.

119) 신성환, 「존재 위백규의 향촌 공동체 운영과 <농가>」, 『어문연구』 42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256~258면.

120) 송재연, 「안방준의 한시 「오륵가」에 구현된 오륵 형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제39집, 국문학회, 2019, 9~16면.

교육시키기 위해 가숙과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 대체적으로 문중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죽산안씨는 이와 달리 목미암(木美庵)이라는 서당을 문중 자체 속하지 않은 촌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운영하였다.¹²¹⁾ 이는 죽산안씨가 향촌에 같이 살았던 촌민들에게 유학적 도리를 보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유교적 가치인 대동사회라는 공동체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²⁾ 그러므로 안방준이 한시에서 다른 오륜과 안후상 등 죽산안씨의 강학과 향촌교화 활동을 같이 고려할 때 안창후의 문학에서 주목 받는 교화성과 유학적 지향은 이 가문의 가문적 전통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안창후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이런 독특한 가문적 전통은 18세기 다른 문인의 문학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안창후의 시조는 비록 황윤석, 남극엽 등이 보여준 한역 혹은 개작의 현상이 없지만 문·시·가의 세 가지 문학적 형태가 결합된 상태로 나타나는 점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의 향촌공동체 의식은 다른 향촌사족들과 비슷하다 할 수 있으나, 그는 세태 혹은 공동체의 모습을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비판의식과 현실 개조 의식이 뒤따르고 있다. 셋째, 의외인 것은 그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만 유학의 이상적 이념을 보급하기 위한 열정만큼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그의 이런 열정이나 유학에 관한 문학창작과 교화는 죽산 안씨의 가문적 전통에서 비슷한 이념적 지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안창후의 문학이 가문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유학적 가치와 가풍을 대대로 계승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121) 김대식, 「조선후기 죽산안씨 문중의 강학과 향촌교화 활동」, 『인문학연구』 45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154~155면.

122) 김대식, 위의 논문, 155~156면.

V. 결론

본고는 조선후기 문인 안창후가 남긴 『한설당집』에 실린 한시, 한문 산문 및 국문시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안창후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창후 문학의 문학사적 위상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안창후의 생애와 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창후는 향촌사족 출신이며, 효도를 지키고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학문과 실천에 전념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설당유고』와 『유고』라는 두 필사본의 차이를 살펴보고 양쪽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기록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설당유고』가 선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설당유고』를 중심으로 인용하되 필요한 경우 『유고』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Ⅲ장에서는 안창후의 문학 세계를 한시, 한문, 산문, ‘한설이십오’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한시를 살핀 결과 안창후가 지은 한시 작품은 불우한 신세 한탄, 유교적 도의 표출, 지(志)와 진(眞)의 직설적 표현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창후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출세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런가 하면 벼슬길에 나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이 막힌 안창후는 자신이 살고 있는 향촌사회에서나마 사족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갈고 닦는 유교적 도의 실천과 관련된 작품을 짓기도 하였다. 한편 안창후는 시를 쓸 때 화려한 수식을 가하기보다는 내면의 뜻과 진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직설적 표현을 선호하였다.

안창후의 산문을 보면 그가 문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인격 수양과 관혼상제 등의 예절을 가르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타나는데 전통적 관혼상제의 예절을 재해석함으로써 당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간소한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안창후는 관혼상제에서 제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문의 화목을 도모하여 가문이 더욱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창후의 문학 세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설이십오’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25개를 선정하고 이를 한문산문, 한시, 국문시가의 순서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한설이십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은 인간의 심성과 처사에 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리와 관련된 이런 가르침은 안창후가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문의 화목을 강조하는 내용도 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IV장에서는 조선후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향촌사족의 문학 특성과 비교하여 안창후 문학의 문학사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타의 향촌사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한설이십오’와 같은 독특한 문학적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과 향촌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유학의 이상적 이념을 보급하려는 열정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열정이나 유학에 관한 문학 창작 및 교화는 그의 가문인 죽산 안씨 집안의 전통에서 비슷한 이념적 지향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안창후의 문학세계가 가문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안창후가 남긴 문집의 두 필사본의 차이를 살펴봤고, 이를 토대로 안창후의 문학을 한시, 산문과 ‘한설이십오’로 나누어 분석함을 통해 각 장르의 특성을 밝히고 안창후 문학의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자료

안창후, 『한설당유고』, 강남대학교 한실문고 소장.

『湖南邑誌』

『論語』

『孟子』

『書經』

저서 및 논문

국윤주, 「조선후기 향촌사족 시가(詩歌)의 자의식(自意識)과 그 윤리적 성격 - 『위문가첩(魏門歌帖)』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김대식, 「조선후기 죽산안씨 문중의 감학과 향촌교화 활동」, 『인문학연구』 45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김덕진,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27권, 한국실학학회, 2014.

김도형, 「이재 황윤석의 문학론」, 『국어문학』 제49輯, 국어학회, 2010.

김준옥, 「존재 위백규의 문학의 기반」, 『고시가연구』 제9輯, 한국시가문화학회, 2002.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18·19세기 향권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배대웅, 「한설당 안창후 시조의 창작 배경과 작품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4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신성환, 「존재 위백규의 향촌 공동체 운영과 「농가」」, 『어문연구』 42권, 한국어문교육연

- 구회, 2014.
-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설인경,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0.
- 송재연, 「안방준의 한시 「오륜가」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제39집, 국문학학회, 2019.
- 송재연, 「안창후 시조의 도학적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국문학연구』 31권, 국문학학회, 2015.
-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새문사, 2015.
- 윤병용, 「남극엽 시조의 개작 및 한역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51권, 한국고전문학회, 2017
- 이상보, 「한설당 안창후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9,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1.
- 이승준, 「삼죽 조황의 祠宇과 「병이음」의 주제 의식」, 『고전과 해석』 제 29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9.
- 임화신, 「「목주잡가」의 창작배경과 시적 인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 79, 한국어문학회, 2003.
- 정소연, 「황윤석의 「목주잡가」에 나타난 시 지향성의 시조사적 조명」, 『고전문학과 교육』 28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 정흥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 조태흠, 「18·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韓國文學論叢』 第15輯, 한국문학회, 1994.
- 조유영, 「조선후기 향촌사족의 이상향 지향과 그 의미」, 『우리말글』 제 71집, 우리말글학회, 2016.